

NEWS SUMMARY

2008.10.16

자산운용협회 홍보실

KRX100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환율 (원/달러)
-64.59	-27.41	-6.04	+31.50
2,817.13	1,340.28	390.28	1,239.50

• 유가증권

투자자별 매매동향

단위: 억원

구분	매도액	매수액	순매수액
기관	9739.2	11732.7	1993.5
외국인	16096.4	11654.2	-4442.2
개인	22401.6	24765.1	2363.5
기타	982.9	1052.8	69.9

• 코스닥

투자자별 매매동향

단위: 억원

구분	매도액	매수액	순매수액
기관	209.1	232.3	23.2
외국인	427.8	327.0	-100.9
개인	8979.4	9051.7	72.3
기타	82.7	87.0	4.3

• KOSPI 200 선물·옵션

단위: 포인트

종목	종가	전일대비	거래량	미결제약정
11월물	174.95	-3.05	339,676	101,600
콜177.5	7.75	-2.40	16,885	17,544
풋177.5	11.00	1.60	19,807	13,157

• 금리

종류	당일시세(연%)	전일대비
콜	4.94	-0.03
CD(91일)	6.06	0.03
회사채(AA-3년)	7.90	-0.04
국고채(5년)	5.21	-0.10

• 환율

단위: 원, 현물거래, 외환은행

통화	고개 말 때	고개 살 때
미국 달러	1221.25	1264.75
일본 100엔	1202.73	1245.57
유럽 유로	1658.19	1725.51
중국 위안	172.90	194.72

美.유럽증시 경기침체 염습공포에 폭락

뉴욕 주요지수 7~9% 폭락.. '블랙먼데이' 이후 최악
유가.금.구리 등 원자재가도 수요감소 우려 급락

(뉴욕 브뤼셀=연합뉴스) 김현준 김영목 특파원 = 미국과 유럽 증시가 15일 금융위기에 이어 세계적인 경기침체 염습에 대한 두려움 속에 폭락했다. 뉴욕증시의 주요 지수는 1987년 10월 '블랙먼데이' 이후 최악의 하루를 기록했다.

미국과 유럽 등 각국이 금융기관이 자본을 직접 투입하는 등 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공조에 나선 이후 리보(런던은행간 금리)가 하락세를 지속하는 등 자금경색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실물경제의 타격으로 경기침체가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 됐다는 우려가 금융위기 대책의 악발을 단숨에 사라지게 한 결과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733.08포인트(7.87%) 하락한 8,577.91을 기록했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150.68포인트(8.47%) 떨어진 1,628.33을,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90.17포인트(9.03%) 떨어진 907.84를 기록했다.

다우지수와 S&P 500지수의 이날 하락률은 블랙먼데이 때의 22.6% 이후 가장 컸다. 다우지수의 이날 하락폭은 지난달 29일 미 하원이 7천500억달러의 구제금융안을 부결시켰을 당시 사상 최대인 778포인트 폭락했던 것에 이어 역대 두번째 기록이다.

유럽의 주요 증시도 폭락세를 보였다.

영국 런던의 FTSE100 지수는 7.16% 하락한 4,079.59로 마감했으며 프랑스 파리의 CAC40 주가지수는 6.82% 하락한 3,381.07로 장을 마쳤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DAX 주가지수도 6.49% 떨어진 4,861.63으로 마감, 하루 만에 다시 5,000 밑으로 주저앉았다.

브라질 상파울루 증시의 보베스파 지수도 11.39% 폭락했다.

이날 미.유럽 증시는 각국 정부가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 금리인하 공조, 은행에 자본 투입 등 초강수를 두고 있지만 소비와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등 경제의 엔진이 꺼져가는 신호음이 곳곳에서 들려 경기침체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지난 이틀간의 '기대'가 '두려움'으로 급선회, 갈수록 낙폭을 키웠다.

이틀전인 13일 다우지수가 사상최대인 900포인트 넘게 오르는 등 주요 증시가 폭등했던 기세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특히 미 상무부가 이날 발표한 9월 미국의 소매판매가 1.2% 감소해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1991년 이후 17년만에 처음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이 경기침체에 대한 투자자들의 공포를 고조시켰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도 이날 뉴욕의 연설에서 금융시장이 희망대로 안정을 찾는다 하더라도 더 광범위한 경기 회복은 바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경제의 어려움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임을 인정했다.

FRB가 이날 내놓은 경기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도 지난달 경제활동이 소비 및 기업 활동 위축 속에 거의 모든 지역에 걸쳐 둔화됐고 전반적 경제전망도 훨씬 어두워졌다고 밝혔다.

경기침체 공포를 반영하듯 미.유럽 증시에서는 세계 경제성장과 관련된 실물경제 주들이 급락세를 주도했다.

뉴욕증시의 경우 산업전반에 쓰이는 알루미늄을 제조하는 알코아는 12.8% 떨어졌고 설비 제조업체 캐터필러는 11.4%, 석유 메이저 엑손모빌은 13.9% 떨어졌다.

유럽에서도 런던증시의 세계적인 광물 채취기업 카자크미스는 22%, 앵글로 아메리칸은 20%에 떨어졌다. 파리증시의 세계 최대 철강업체 아르셀로 미탈은 14%, 자동차업체 르노도

13%씩 하락했고 프랑크푸르트증시의 독일 최고의 제조업체 지멘스도 14% 추락했다.

경기침체의 공포로 유가와 구리 등 원자재 가격도 추락세를 지속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5.2% 급락한 배럴당 74.54달러에 거래를 마쳐 13개월 최저치를 기록했다. 런던 ICE 선물시장의 11월 인도분 북해산 브렌트유도 4.9% 떨어진 배럴당 70.87달러를 기록했다.

12월 인도분 구리가격은 7.7% 떨어진 파운드당 2.2105달러에 거래돼 5월5일 최고치에서 48%나 떨어졌다.

금 가격도 내려가 12월 인도분이 50센트 떨어진 온스당 839달러를 기록했다.

19개 원자재로 구성된 로이터'제프리스 CRB지수는 이날 4.5%까지 떨어지며 2005년 2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추락, 경기침체에 따른 원자재가의 급락세를 반영했다.

june@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등록일 : 10/16 07:00

주가·원화값 다시 약세

코스피 27P ↓ 1340...원화값 31원 ↓ 1239원

美다우 장중 9000 재봉괴

코스피가 직전 이틀 동안 10% 이상 급등한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15일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보다 27.41포인트(2.00%) 하락한 1340.28에 마감했고, 코스닥지수는 6.04포인트(1.52%) 떨어진 390.28에 마쳤다.

폭락장에 이어 반등 속도가 빨랐던 만큼 차익매물이 쏟아지면서 지수 하락을 초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외국인도 하루 만에 4442억원 순매도로 돌아섰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도 이틀째 하락해 전일보다 1.12% 떨어진 1994.67에 마쳤다. 그러나 일본 닛케이는 약세로 출발했으나 정부의 추가 부양책 기대가 살아나면서 장 후반 반

등해 전일보다 1.06% 상승한 9547.47에 마감했다.

미국과 유럽 증시도 급락세를 연출하고 있다. 미국 다우존스지수는 15일 오전 11시 20분(현지시간) 현재 전일보다 3.48% 떨어진 8986.82를 기록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국 증시 대부분도 6~7%의 하락폭을 보이고 있다.

이날 외환시장에서 원화값도 전일보다 31.50원 떨어진 달러당 1239.50원을 기록해 5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날 원화값은 전일보다 13원 오른 1195원으로 출발한 뒤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한때 1257원까지 폭락했지만 장 막판 매물이 증가하며 다시 상승했다.

▶ 관련기사 A9·16·23면

이한나·한예경 기자

□ 사흘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코스피

단기간 급등에 경계심리 “쉬어가자”

코스피가 이틀 동안 10% 이상 급등한 피로감이 겹치면서 15일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전문가들은 당장 금융위기 완화가 전 세계 증시를 이틀 동안 10% 이상 폭등할 정도로 강하게 끌어올렸던 만큼 기술적으로도 조정을 겪는 게 자연스럽다고 분석했다. 14일 반짝 순매수로 돌아섰던 외국인 이 날 4000억원 이상 순매도한 것처럼 단기 반등을 차익 실현 기회로 활용하는 투자자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 본격 반등 내년에나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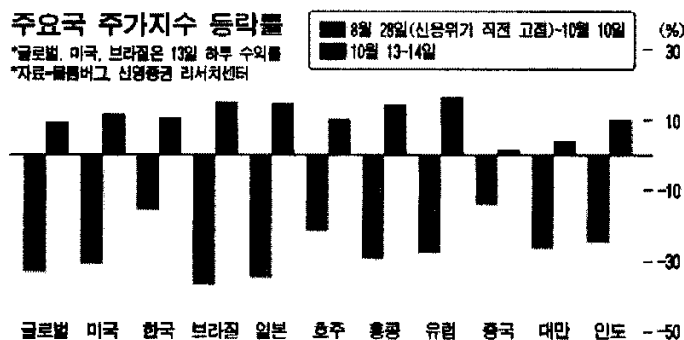
앞으로 증시의 핵심 변수인 금융위기 해소와 실물경제 반등 두 가지 문제 중 어느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느냐에 따라 증시 방향도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김학주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금융위기는 해결 국면에 진입한 상황이고, 향후 소비 위축 등 실물경기 침체에서 비롯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남아 있으나 심리적 충격은 이전보다 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미 재정적자 부담이 커지면 또다시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중국이나 중동의 국부펀드가 미국의 자본 확충을 지원한다면 증시에 대형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 주택가격이 상당히 떨어

주요국 주가지수 등락률

*글로벌, 미국, 브라질은 13일 하루 수익률
*자료-블룸버그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어진 상황이고 정부 개입으로 추가 하락 여지가 작은 데다 금융시장 안정으로 파생상품 손실 규모도 축소되면 그만큼 금융사의 자본 확충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조익재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는 미국 제조업 가동률이 기업 이익 증가율을 약 1년 선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1분기까지는 이익이 급락한 후에야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실업률이 상승했던 기간을 중심으로 과거 경기 침체기를 살펴보면 2차 오일쇼크 때 4개월 지속됐고, 주가는 최고 45%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초유의 금융위기 상황에서 과거 하락 기간과 하락폭은 참고 사항일 뿐이다. 경기 둔화가 어떤 형

태로 진행될지 알 수 없는 데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업 이익이 하향 조정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도 인내심 테스트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

◆ 1400선까지 반등 기대

증시가 길고 긴 박스권에 갇히기 전에 ‘약세장 속 반등(bear market rally)’이 나타날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유가 하락 여파로 인플레이션 염려를 덜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11월이면 구제금융안이 실행되고 글로벌 금리 인하 공조 효과가 나타날 여건이 형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진호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현재는 반등의 초기 국면으로 최근 이틀간 10% 이상 급등했고 추가 상승 여력이 15% 이상 될 수도 있지만 반등 속도는 점차 둔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대투증권은 2000년 이

후 코스피의 120일 이동평균선 이격도가 80% 이하로 확대됐던 단기 급락 장세는 세 차례 있었는데, 반등시 저점 대비 25% 이상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고 반등 기간은 30거래일 이상 지속됐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경수 토리스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금융위기는 유동성이 초래한 거품과 붕괴, 투자심리 변화와 정부의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1990년대 일본 금융위기와 속도는 차이가 있지만 전개 과정이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현 장세는 일본처럼 국유화와 구제금융이 도입된 후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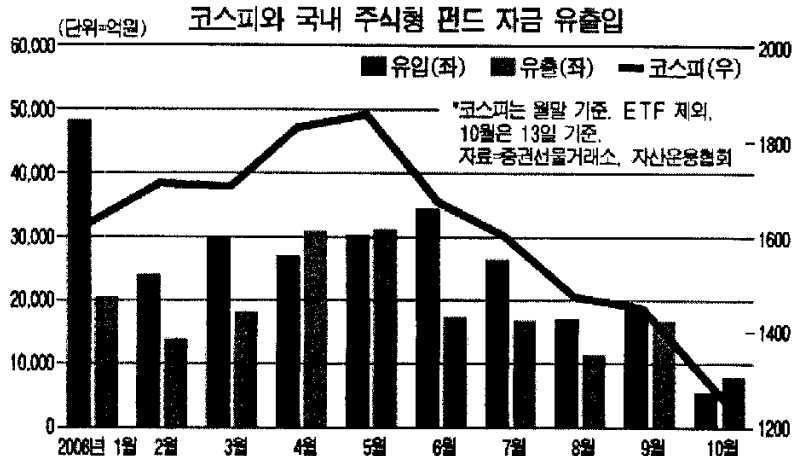
코스피가 최악의 국면을 벗어났다고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최근 폭락의 충격을 딛고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전 저점을 하회하거나 급락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이경민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9월 이후 지지선 구실을 했던 1370에 근접하면서 단기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시장 안정이 이어지더라도 최근 같은 극적인 반전이 지속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기술적 분석에 따르면 반등세 확장이 나타나 1370과 20일 이동평균선(1400)을 넘어서면 단기적으로 1460선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한나 기자

주가 급등락이 이어지면서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속속 자금이 이탈하고 있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는 최근 나흘 동안 총 3108억원이 순유출됐다.

또 해외 주식형 펀드에서도 같은 기간 2748억원의 자금 이탈이 있었다. 국내외를 합하면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총 5856억원 자금이 줄어든 셈이다.



적립식펀드에 돈 안들어온다

국내주식형 나흘새 3100억 유출...환매는 법인이 많아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펀드런(대량 환매 사태)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자금 유출입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이 같은 열려는 아직 이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직은 환매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하락장에서 적립식 펀드 등에 자금 유입이 감소한 영향이 더 크다. 또 환매는 개인보다는 법인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부분 아직은 손실폭이 크지 않은 장기 투자자들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금 유입 줄어든 때문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펀드 자금 유출은 해외 펀드에서 먼저 시작됐다.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한 해외 주식형 펀드에서 지난 7월 이후 꾸준히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 7월 이후 13일까지 빠져나간 자금만 총 2조1913억원에 달한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는 자금 유입이 꾸준히 나타났으나 이달 들어 13일까지 1890억원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ETF는 개인투자자가 설정·환매하는 것이 불가능한 데다 거래 대부분을 기관투자자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펀드에서는 올해 들어 지수

가 반짝 상승했던 1월과 5월 각각 3조82억원과 2조8549억원 자금이 유출됐다. 반짝 상승에 유입 자금도 각각 4조원과 3조원에 달해 전체로는 순유입이 나타났다.

이 기간을 제외하고는 평균 1조원 가량이 매달 빠져나가고 있다. 이에 비해 유입은 2월의 1조8327억원에서 지난달에는 7352억원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수진 제로인 연구원은 "펀드런 열려는 아직 이르다"며 "주식형 펀드 자금 유출은 환매가 늘었다기보다 자금 유입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적립식 펀드 이체 중단 영향

자금 유입이 이처럼 감소하는 것은 무엇보다 적립식 펀드 자금 유입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불안정한 시장이 이어지면서 적립식 펀드 투자자들이 불입을 일시 중단하는 일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적립식 펀드에 자금 이체를 중단한 투자자 전 모씨는 "환매하자니 손실폭이 너무 크고 돈을 넣자니 전망도 불안해서 적립식 자금 이체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국내 적

립식 펀드 투자액은 지난 1월 한 달 동안 6조원 이상이 유입되면서 최고조에 달했다. 그러나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8월에는 3719억원 유입에 그쳤다. 적립식 계좌 수 역시 7월과 8월 처음으로 두 달 연속 감소가 나타나기도 했다.

자금 유출이 나타나는 펀드는 장기간 투자가 이뤄진 것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10월 들어 13일까지 100억원 이상 자금 유출이 발생한 국내 주식형 펀드 9개 모두 코스피가 현재 수준보다 낮았던 2005년 이전에 설정된 상품들이다.

오소영 동양증권증권 금융센터 강남본부점 과장은 "아직은 수익이 낮거나 손실폭이 작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환매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안전자산 선호와 함께 대부분 기관투자자가 자금을 넣고 있는 MMF로 8거래일 만에 13조원 이상이 풀렸다.

▶ 10월 10일자 A21면 보도

서경덕 하나대투증권 펀드연구원은 "급락 조정 국면에서의 환매는 투자자의 역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욱·박준형기자

주식형 펀드 자금 이탈 가속... 실물경기 위축

다시 불안한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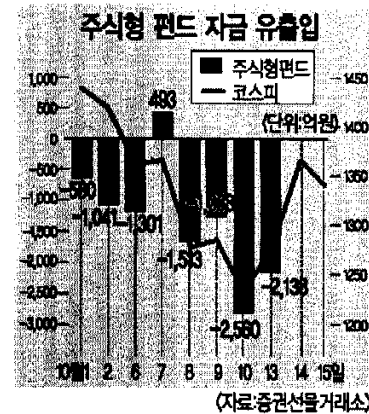
우리 금융시장이 15일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인 것을 단순한 '숨고르기'로 판단하기에는 몇 가지 좋지 못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증시와 외환시장 모두 외국인들 중심에서 수급이 불안하고 실물경기도 크게 위축되고 있다.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지만 고비를 완전히 넘기지 못하고 주춤거리는 모양새다.

◆안심하기 이른 징후들=대외 변수에 일희일비하는 외국인이 가장 큰

강금속업종 지수(4254.49)가 급락한 것. 지난 5월16일 7304.42로 최고점을 찍었던 이 지수는 이후 5개월간 40% 정도 떠졌다.

대우증권 양기인 연구원은 "경기에서 가장 민감한 철강금속주가 크게 빠지고 있는 것은 실물경기가 좋지 않아 수요가 둔화되고 수급이 불안해지면서 철강 가격이 약세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증시의 실탄이 돼야 할 주식형 펀



세계 금융시장에서 아직 돈이 제대로 돈다는 느낌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증권 김성봉 연구위원은 "리보 금리(펀단은행간 금리)가 떨어지는 것이 명확해질 때가 시장 안정을 논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은 연말까지 예외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표한형 연구위원은 "일시적으로 과도한 수출 현상은 진정됐으나 아직 안정세를 이루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며 "연말까지 변동성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증시는 코스피지수 1400대가 '펀드런(펀드 대량환매사태)'과 상승 지속의 고비가 될 전망이다. 하나대투증권 김대열 펀드리서치 팀장은 "1420대가 되면 환매 움직임이 없는 기관도 환매 여부를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규 전용빈 기자 zhibago@kmib.co.kr

외국인들 주식 순매도, 달러 본국 송환 수출 대기업의 달러 매도세 자취 감춰 “세계 금융시장 아직 돈이 안도는 느낌”

문제다. 전날 코스피시장에서 10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선 외국인은 이날 4325억원을 순매도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외국인은 증시에서 회수한 자금을 달러로 바꿔 본국으로 송환하면서 수급 균형이 무너졌다. 최근 환율 급락을 가져온 수출 대기업의 매도세가 자취를 감춘 것도 환율 급등에 일조했다.

실물경기 침체도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실물경기의 바로미터인 철강금속주는 연일 하락세다. 이날 코스피시장 철

드에서는 자금이탈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달 들어 주식형 펀드는 4929억원의 순유출을 기록 중이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해외 주식형펀드에서만 자금유출 현상이 있었지만 이달 들어서는 국내형(-2160억원)과 해외형(-2765억원)의 유출 규모가 비슷해졌다.

◆시장안정 언제 될까=답이 없다. 해외발 불안요인이 여전히 환율과 주가 모두 변동성이 큰 장세를 보일 것이라 예측이 많다. 글로벌 공조로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서울경제

10월 16일 a19면

국내외 주식형펀드 4일 연속 자금 이탈 총 5,856억원 달해

주식형펀드 자금 이탈이 4거래일째 계속되고 있다. 나흘간 빠져나간 자금 규모는 총 6,000억원에 이른다.

15일 자산운용협회와 굿모닝신한증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국내 주식형펀드(ETF 제외)에서는 총 270억원의 자금이 순유출돼 4거래일 연속 자금이 빠져나갔다. 해외 주식형펀드에서도 이날 794억원 순유출을 기록하며 국내 펀드와 마찬가지로 4거래일 연속 자금이 이탈됐다. 국내(3,108억원 유출)와 해외(2,748억원)를 합치면 총 5,856억원 순유출이다.

이달 누적 순유출 규모는 4,925억원으로 이달 초 자금이 순유입된 것을 감안해도 하루 평균 615억원씩 빠져나간 셈이다.

증시 불안이 계속되면서 자금은 머니마켓펀드(MMF)로만 유입돼 시중 자금의 단기 유동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13일 MMF로는 총 8,677억원의 자금이 유입됐고 이달 들어 8거래일 연속 총 13조4,371억원이 들어왔다.

/이상훈기자 fiat@sed.co.kr

경향신문

2008년 10월 16일 015면

주식형펀드 나흘간 5856억 '썰물'

해외펀드 7월이후 설정잔액 3조 가까이 감소

주식형펀드에서 지난 나흘간 6000억원 가까운 자금이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주식형펀드는 지난 7월 이후 설정잔액이 3조원가량 줄었다.

15일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13일 기준으로 국내·해외주식형펀드 모두 4일(거래일 기준) 연속 자금 이탈을 나타내며 5856억원의 순유출을 기록했다. 이날 국내 주식형펀드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하고 270억원이 순유출돼 나흘간 누적 순유출액이 3108억원에 이르렀다. 해외 주식형펀드에서는 이날 빠져나간 794억원을 포함해 나흘간 2748억원이 감소했다.

국내 주식형펀드보다 먼저 환매 움직임이 본격화된 해외 주식형펀드는 지난 7월 이후 설정잔액이 3조원 가까이 감소했다.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의 유동성 위기가 부각된 지난 7월부터 이달 10일까지 해외 주식형펀드 설정잔액은 2조9638억원 줄었다. 7월에 8578억원, 8월에 5126억원 감소한 데 이어 지난달에

는 1조1310억원, 이달 들어서는 열흘 만에 4624억원이나 줄어 갈수록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

투자 지역·국가별로는 중국펀드가 7862억원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브릭스(-5979억원), 아시아(-4987억원), 유럽(-1718억원), 라틴아메리카(-1569억원), 일본(-1224억원), 친디아(-115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인도(-936억원), 이머징(-799억원), 러시아(-675억원), 중동·아프리카(-585억원) 등에 투자하는 펀드도 설정잔액이 줄었다.

특히 일본에 투자하는 펀드는 지난해 6월 이후 지속적으로 설정잔액이 감소해 3조2166억원이나 줄었고, 라틴아메리카 펀드는 지난해 12월부터 4126억원이 줄어드는 등 일부 지역은 지난해부터 감소세가 시작됐다. 반면 미국에 투자하는 펀드는 7월 이후 설정잔액이 282억원 늘었다. 이는 미국증시가 신용위기로 급락하자 일부 투자자들이 이를 바닥권으로 인식하고 미국펀드에 투자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박수정기자

하락장에도 재미보는 '주식선물·ELW' 인기

거래량 꾸준히 늘어 헤지등 위험 살피야

변동성 장세에서 대안투자로 파생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달 들어 코스피 지수가 5% 이상 오르내릴 정도로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식선물이나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파생상품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무조건 올라야 하는 주식과 달리 미리 방향성만 잘 예측하면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주식선물 거래량은 7만4968계약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달 초 3만계약에 불과했던 주식선물 거래량이 두 배가 넘게 뛰었다. 우리금융이 5만2969계약으로 가장 활발히 거래했으며 현대차와 삼성전자도 각각 3000계약이 넘게 거래됐다.

우리투자증권 최창규 연구원은

구분	선물계약수
10월 1일	4만2270
2일	3만 596
6일	3만4755
7일	3만7441
8일	4만4321
9일	3만7412
10일	5만3155
13일	5만8633
14일	7만4968

"우리금융 선물의 거래 폭발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지만 나머지 종목들도 고른 거래분포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런 흐름에서는 거래량 급증 종목에 주목하는 전략도 효과적인 것이라는 설명이다.

ELW 거래량 역시 이달 들어서는 10억주 안팎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단기 폭등에 따른 차익 실현 때도 물량으로 약세를 보인 이날은 반등

에 대비한 콜ELW 상품들의 수익률이 급등했다. 수익률 100% 이상을 기록한 17개 ELW 상품 중 풋ELW는 맥쿼리8426현대차풋 하나뿐이다.

한국8253우리투자증권이 750%나 올랐으며 1000주 이상 거래된 종목들로는 하나B8174엘지디스콜(250%), 씨티8150대한항공콜(194.2%), 대신8350현대증권(172.73%), 우리8310대우조선콜(100%), 한국8104엘지전자콜(100%) 등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쉽게 방향성을 예측할 수 없는 데다 변동폭도 커지면서 ELW나 선물옵션에서 '대박'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대박 투자자가 있다는 것은 반대로 쪽박 투자자들도 분명 있다는 것. 전문가들은 ELW나 파생상품이 지금과 같은 장에서 대안투자 상품이 될 수 있지만 헤지 등을 염두에 두고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hug@fnnews.com | 안상미기자

서울경제

2008년 10월 16일 a20면

中 A주 전용펀드 출시 늦어질듯

국내 자산운용사들 현지증시 침체로 일정 못잡아

올 들어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중국 본토 A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 자격을 잇따라 받았지만 정작 중국 증시는 침체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A주 전용펀드의 본격적인 출시가 예상보다 늦춰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QFII를 획득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9월 초 총 1억달러 규모의 투자한도를 부여받았지만 아직 구체적인 펀드 출시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미래에셋 측은 "이달 말이나 오는 11월 초에 출시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못 잡았다"며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8월 QFII를 받은 삼성투신운용은 아직 중국 금융 당국으로부터 투자한도를 부여받지 못해서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삼성투신운용의 한 관계자는 "세계 금융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 중국 정부에서도 쿼터 배정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 같다"며 "쿼터가 나와도 펀드 출시 타이밍을 고려해야 할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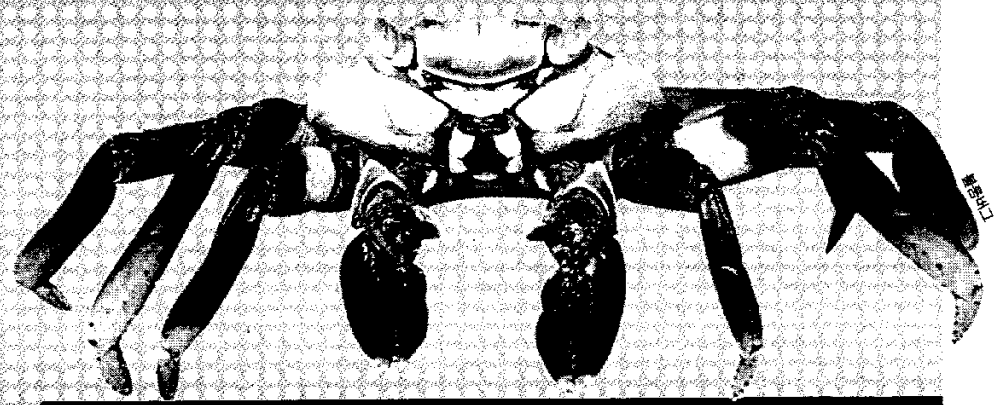
라고 말했다.

국내 최초로 QFII를 받은 푸르덴셜투신운용의 경우 4월에 자격을 받고 3개월 만인 7월에 본토펀드를 출시했다. 당시에도 시장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펀드 출시 3일 만에 770억원 규모가 판매될 정도로 본토 증시에 대한 투자자들의 열기가 뜨거웠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당시보다 증시가 훨씬 악화돼 펀드 살점이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상하이종합지수가 2,000선 아래로 내려간 상황에서 저가투자의 기회로 판단하는 자금이 몰릴 경우 예상 외의 선전을 거둘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상훈기자 flet@sed.co.kr

변동 없는 '게 걸음 場' 포트폴리오 다시 짜라

펀드 전문가들이 말하는 투자 전략



지난주 속절없이 추락하던 전 세계 증시가 은행 국유화를 골자로 한 미국과 유럽의 금융구제안 발표로 다소나마 진정을 되찾은 모습이다. 폭락세는 잦아들었지만 금융위기의 실물경제 전이 및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증시가 본격적인 회복세로 돌아서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본지가 설문한 의뢰한 증시 전문가 대부분은 코스피 지수가 지난 5월 기록한 1888 수준의 전(前) 고점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내년 3분기 이후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1년 정도는 폭락은 면하더라도 주가가 박스권을 형성하며 옆으로 가는 횡보장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장세에서 펀드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머징 비중 축소, 박스권에선 추가흐름 살펴 갈아타야

증시 전문가들은 최근 국내외 증시 상황이 불안하기 때문에 일단 변동성이 큰 시장에 투자한 펀드에 대해선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실제로 이번 금융위기의 시발점은 미국이었지만 주가가 더 크게 반응한 쪽은 브라질이나 러시아 같은 신흥국가 증시였다.

동양증권증권 글로벌리서치팀 김후정 연구원은 "국내 펀드의 비중은 50~70% 정도로 가져가고, 섹터 펀드는 10%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최근 원자재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나 브라질 같은 자원부국 펀드에 대한 비중은 줄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포트폴리오를 조절할 때는 분할매수를 통해 위험을 줄이고 항시 추가흐름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증시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특히 주가가 박스권을 이루며 횡보하는 모습을 보일 때는 상·하단 구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삼성증권 조원제 펀드연구원은 "적극적인 투자자라면 현금을 확보할 게 아니라 박스권 하단에서 성장주의 비중을 늘리고, 박스권 상단에서는 가치주의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추가매수 여력이 있는 투자자라면 조금 다른 전략을 써보는 것도 가능하다. 국모닝신한증권 이계웅 펀드리서치팀장은 "추가 매수 여력이 있는 투자자라면 포트폴리오를 재정립하기 전에 (저점에) 추가 투자를 통해 매수단가를 낮춘 뒤 반등이 일어날 때 일부 펀드를 정리하는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러·브 등 자원부국 비중 줄이고 국내 펀드에 집중
반등 때 분할 환매… 적립식 펀드는 계속 불입해야”

◆환매는 나눠서, 적립식 펀드는 계속 불입해야

증시 전문가들은 정 환매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반등시에 나눠서 환매할 것을 권유했다.

대우증권 김혜준 연구원은 “요즘처럼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할 때 정확한 환매 타이밍을 잡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주가가 반등할 때마다 3~4번에 걸쳐 분할 환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

매 시기와 관련해 푸르덴셜투자증권 남형민 펀드리서치팀장은 “각국의 정책공조로 시장이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기대되는 연말 이후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적립식 펀드와 관련해서는 증시 전문가들은 “횡보장에서 적립식 펀드에 대한 불입은 계속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일관된 목소리를 냈다. 적립식 펀드는 장기간 투자할 경우 전체적으로 매입단가

를 낮출 수 있다는, 소위 ‘코스트 애버리지’(cost average)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고점에 비해 많이 하락한 지금 시점이 적립식 투자를 통해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기회라는 것이다.

삼성증권 조원제 연구원은 “주가가 고점을 기록했던 지난 5월 말부터 적립식 펀드를 시작해 9월 말까지 불입했다면, 이 기간 추가하락률이 21%를 넘었지만 손실률은 9.3%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지수가 10%만 상승해도 원금회복이 가능하고, 추가 상승시 플러스 수익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재곤 기자 truman@chosu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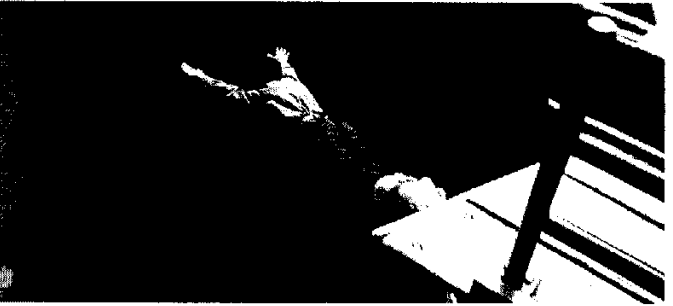
횡보장시 펀드투자전략 전문가 설문 (증권사별 가나다순)

설문자	전고점(1888) 회복은 언제쯤?	횡보장시 적절한 펀드투자전략은?
국모닝신한증권 이계웅 펀드리서치팀장	2010년 상반기	국내주식형은 가치주펀드 위주로, 해외주식형은 이머징 비중 축소.
대신증권 성진경 시장전략팀장	2009년 3분기	반등시 일부 펀드 환매한 뒤 박스권 저점 부근에서 재투자.
대우증권 김혜준 연구원	2009년 2~3분기	꼭 필요할 때 3~4차례에 걸쳐 분할 매수, 매도.
동양증권 김후정 연구원	2009년 3분기	국내 펀드 비중 50~70% 유지하고, 러시아 같은 자원부국펀드 비중 축소.
삼성증권 조원제 연구원	2009년 이후	박스권 하단에서 성장주 비중 늘리고 상단에서 가치주 비중 늘리는 전략 고려.
우리투자증권 조한조 연구원	2009년 하반기	과도한 포트폴리오 조정을 피하고 분할매수 통한 적립식 투자가 적합.
푸르덴셜증권 남형민 펀드리서치팀장	2009년 3분기	이머징펀드 비중 40% 이상이라면 반등시 일부 환매해 포트폴리오 조정.
하나대투증권 김대열 펀드리서치팀장	2009년 3분기	박스권 저점 다지기 살핀 후 상승 예상될 때 분할매수, 일부는 환매수수료 부담 없애는 ETF로 전환.

출시 1개월 만에 녹인된 주요 주가연계파생상품

*자료: 증권 및 자산운용업계, 영리원 기자

상품명	발행 및 운용사	설정일	발행금액	기초자산
피닉스주가연계파생상품 47-49호	피닉스자산운용	2008.8.27	54	HSCEI, KOSPI 200
삼성한중대표주가연계파생상품투자신탁 4-1	삼성투자신탁운용	2008.8.28	13	HSCEI, KOSPI 200
H&D증권(ELS)5	하나대투증권	2008.9.01	200	KOSPI 200, NIKKEI
H&D증권(ELS)4	하나대투증권	2008.9.01	200	HSCEI, KOSPI 200
동양MYSTAR(ELS)108	동양증권증권	2008.9.08	36.1	HSCEI, KOSPI 200
H&D증권(ELS)12	하나대투증권	2008.9.08	16.2	KOSPI 200, NIKKEI
대신증권(ELS)700	대신증권	2008.9.25	1.2	LG, 삼성증권인
푸르덴셜2Star파생상품SP-3호	푸르덴셜자산운용	2008.10.02	26	포스코, 신한지주



“일단 내놓고 보자” ELS·ELF 경쟁 과열

한달도 안돼 ‘원금 손실’ 속출

고수익 치중 위험관리 소홀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한 가운데서도 증권 및 자산운용사들이 주가연계증권(ELS) 주가연계펀드(ELF) 등 주가연계 파생상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무리한 상품개발 경쟁으로 출시된 지 한 달도 안돼 원금손실 구간(녹인·Knock-In)에 접어드는 ‘최단기 녹인상품’들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대신증권 ‘ELS700’ 11일 만에 ‘녹인’=15일 증권 및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이 지난달 25일 발행한 ‘ELS700’은 출시 11일 만에(영업일 기준) ‘녹인’이 발생했다. 이 상품은

LG와 삼성중공업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만기 2년의 조기상환 상품. 지난 10일 기초자산 중 하나인 삼성중공업 주가가 장중 1만9400원까지 떨어지면서 기준가(3만3300원)의 60% 아래로 내려가 원금손실 구간에 진입했다.

이 상품의 지난 14일 종가기준 손실률은 17.75%. 1억원을 투자한 고객이 중도환매할 경우 환매수수료(환매금액의 6%)를 포함해 2268만5000원을 잃게 된다. 물론 만기 때 삼성중공업 주가가 기준가의 80% 수준(2만6640원)까지 회복된다면 연 22.5%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투자자 입장에서선 일단 원금손실 구간에 들어섰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다.

ELF에서도 최단기 녹인상품들이 잇따르고 있다. 푸르덴셜자산운용이 지난 2일 설정한 ‘푸르덴셜2Star파생상품SP-3호’는 불과 6일 만에 녹인이 발생했다. 기초자산의 하나인 포스코 주가가 폭락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 상품은 원금보전형 ELF로 만기(3년) 때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투자비용(1000만원 투자시 약 13만원)을 제외한 원금은 건질 수 있다.

또 피닉스자산운용이 지난 8월27일 내놓은 ‘피닉스주가연계 파생상품 47호, 48호, 49호’는 30여일 만에 모두 원금손실 구간에 진입했다. 기초자산의 하나인 홍콩 H증시가 40% 이상 폭락하면서 녹인이 발생한 것. 만기까지

홍콩 H증시가 기준가(1만1780.91)를 회복하지 못하면 원금손실이 불가피하다.

◇일단 내놓고 보자?=해당 회사들은 “고객이 고수익·고위험을 선택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한다. 또 일부 회사는 “그렇게 빨리 터질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녹인이 발생한 ELS에 투자한 한 고객은 “애초 상품가입 시점에는 고수익이 가능하다는 것만 강조했다. ‘시장이 안좋은데 괜찮겠냐’는 질문에는 ‘더이상 떨어지겠냐’며 안심하라고 말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최단기 녹인상품이 잇따라 나오는 것은 업계의 지나친 상품개발 경쟁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 불안이 정점에 달한 9월부터 최근까지 출시된 ELS와 ELF는 공모형만 226개다. 또 손쉽게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리스크관리보다 고수익을 추구하는 상품들만 경쟁적으로 내놓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임상연·박성희 기자 sylin@

실물펀드 수익률 '썩썩'

올 40~80% 고수익-선박 등도 플러스 수익

만기 길고 중도환매 안돼

부동산 선박 천연자원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들이 수익률 호조를 보이고 있다. 추가 납입이 불가능하고 만기가 긴 것이 단점이지만 불투명한 증시 상황과 관계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어 주목된다.

15일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미래에셋캐스운용이 만든 공모형 부동산펀드 '캐스프런티어' 시리즈가 올 들어 40~80%대의 고수익을 기록 중이다. 2004년 설정된 4호와 5호는 13일 기준으로 연초 이후 각각 46%와 52%, 2005년 출범한 10호 펀드는 올 들어 82%의 수익을 올렸다. 이 상품들은 투자자의 자금으로 상업용 건물을 매입한 후 임대해 수익을 나눠주는 구조로 운용돼 주식시장과는 상관없이 수익률이 결정된다. 수익률이 가장 좋은 10호 펀드의 경우 서울 삼성동의 오피스 빌딩에 투자했다.

또 건설사에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형식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형 부동산펀드들은 올 들어 6% 안팎의 수익을 내고 있다. 공모형 중에는 '칸서스용인죽전APT부

주요 실물펀드 수익률 현황

펀드	연초 이후
캐스프런티어부동산10	82.61
캐스프런티어부동산5	52.11
엘스아시아퍼시픽부동산공모1	18.28
칸서스용인죽전APT부동산	6.78
한국베트남15-1유전해외자원	28.32
한국월드와이드아시아태평양특별자산1	18.16
하나UBS암바토비니켈해외자원개발1	6.79
하나UBS세계로선박특별자산1	6.04

*15일 기준.

자료:한국펀드평가

동산펀드'가 6.78%로 가장 성적이 좋다. 해외 부동산펀드는 '캐스아시아퍼시픽부동산공모1'(18.28%) '한국월드와이드아시아태평양특별자산1'(18.16%) 등이 돋보인다.

이 밖에 원유와 니켈 생산광구에 투자하는 '한국베트남15-1유전해외자원'(28.32%) '하나UBS암바토비니켈해외자원개발1'(6.79%), 선박펀드인 '하나UBS세계로선박특별자산1'(6.04%) 등도 플러스 수익을 올리고 있다.

김대열 하나대투증권 펀드리서치팀장은 "실물펀드는 대개 만기가 5년 이상으로 길고 중도 환매가 어려워 장기 여유자금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특히 PF형 부동산펀드는 해당 건설사의 신용도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

해외펀드 '환헤지 전략' 다시 짤 때

환율 요동칠 땐 장기·적립식 투자가 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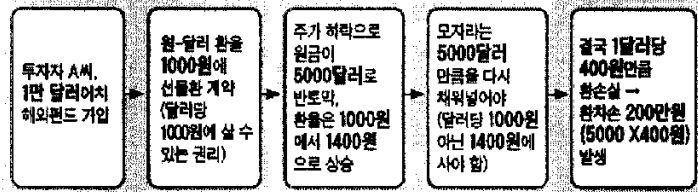
중소기업에 다니는 박윤호(31·가명) 씨는 요즘 지난해 10월 가입한 일본 주식형 펀드만 떠올리면 화가 치민다. 원금 2000만원이 반 토막 난 것은 주가가 패졌으니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환 헤지만 안 했다면 손실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박씨는 “펀드를 판 은행에 물어보니 환 헤지를 안 했다면 손실이 5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더라”며 “환 헤지를 권했던 은행이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환율이 급하게 오르면서 해외펀드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환위험을 피하기 위해 한 환 헤지 때문에 되레 손실이 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환율이 너무 급히 오르다 보니 환 헤지를 해도 환손실을 보는가 하면, 환차익을 얻은 기회를 날리기도 한다.

최근엔 환 헤지를 하지 않고 아예 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해외펀드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자산운용사들도 환 헤지를 하지 않는 신상품들을 내놓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이민홍 대리는 “환율이 오른 만큼 부족분을 토해내면서까지 환 헤지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고객도 적지 않다”며 “예전처럼 환 헤지를 권하는 장구 직원도 사라졌다”고 말했다.

환헤지 한 해외펀드 손실난 이유는



환헤지에 따라 갈린 펀드 수익률 (단위: %)

펀드명	설정일	수익률		환헤지 여부
		1개월	연초 이후	
삼성글로벌대체에너지주식종류형자 1_A	2007.8.25	-28.94	-48.88	O
삼성글로벌대체에너지주식종류형자 2_A	2007.8.25	-20.41	-34.83	X
삼성글로벌Water주식종류형자 1_A	2007.4.12	-21.58	-33.44	O
삼성글로벌Water주식종류형자 2_A	2007.4.12	-12.74	-14.72	X
푸르덴셜중국본토주식자(H)-A	2008.7.30	-8.68		O
푸르덴셜중국본토주식자(H)-A	2008.7.30	-0.03		X
프랭클린템플턴재팬주식형자(A)	2008.5.9	-23.11	-42.05	O
프랭클린템플턴재팬주식형자	2007.2.2	-8.61	-18.93	X

*순자산액 400억원 이상

◆“환 헤지 안 하는 게 이득”=최근까 지 해외펀드 가입 때는 대부분 환 헤지 계약을 맺었다. 환율 위험을 줄여준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환율이 너무 빨리 오르다 보니 되레 환 헤지를 한 쪽이 손해 보는 경우가 많아졌다. 특히 문제가 된 게 정해진 금액에 달러를 사는 방식으로 환위험을 줄이도록 설계한 선물환 계약 해외펀드들이다. 주로 해외 운용사들이 판 역외펀드는 대부분 투자

금 전액에 대해 1~2년짜리 선물환 계약을 했다. 그러나 이는 계약한 환율보다 환율이 크게 오르면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예컨대 투자금 1만 달러를 원-달러 1000원에 선물환 계약을 했다고 치자. 펀드가 손실이 나 원금이 반 토막 나고, 환율은 1400원으로 올랐다면 펀드에는 5000달러밖에 없게 된다. 투자금 전체에 환 헤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모자라는 5000달러만큼 달러를 사

서 정산해야 한다. 그것도 시세인 달러당 1400원에 사야 한다. 결국 환차손만 200만원(400원 x 5000달러)을 보게 되는 셈이다.

◆환율 급변 땐 적립식이 유리=그러나 투자자들의 선택의 폭은 그리 넓지 않은 편이다.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 민주영 수석연구원은 “요즘은 환 헤지를 안 한 펀드를 찾는 투자자가 많다”며 “그러나 대부분 상품이 환 헤지를 해놓고 있어 투자자의 선택 폭이 넓지 않은 편”이라고 말했다.

무조건 환 헤지를 하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다. 신한BNP 관계자는 “요즘처럼 원화 가치가 크게 떨어졌을 때는 환 헤지를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며 “무조건 환 헤지를 안 하는 게 유리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엔 환 헤지를 안 한 상품을 찾는 투자자들이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환 헤지를 하지 않지 고민될 때는 적립식 투자도 좋은 방법이다. 삼성증권 조완제 연구원은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환율이 떨어졌을 때 더 많은 외국 동화를 사게 돼 장기적으로 환율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며 “적립식으로 투자한다면 굳이 환 헤지 계약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hyeree@joongang.co.kr

‘반짝 반등’ 펀드 어쩔까...분산환매·갈아타기 할만

급한 돈은 손실적인 펀드부터 지수대별 환매
여유자금은 일단 기다리면서 포트폴리오 조정

미국발 금융위기로 추락을 거듭하던 국내의 증시가 13, 14일 반짝 반등세를 보이는 등 호전 기세가 일부 나타나자 펀드 투자자들의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다. 금융위기 파장에 따른 폭락장에서 자포자기에 가까운 심정이었다가, 간간이 나타나는 상승세 때문에 환매 여부를 놓고 심리적 압박감이 더 커졌다.

투자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본인의 투자 상황을 점검할 것을 권한다. 먼저 투자 자금의 성격을 확인하는 일이 출발점이다. 학자금, 전세자금, 대출금 상환 등 1~2년 안에 반드시 써야 할 돈을 가지고 투자에 나설 경우 장기투자를 하고 싶어도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반대로 여유자금이라면 지금의 하락장은 문제될 것이 없다. 마음이 편하지 않을 뿐, 2~3년 뒤 상황은 지금과 달라질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난해까지 이어졌던 대세 상승국면에서 무리하게 투자에 나섰던 사람들이다. ‘일단 더 기다려 보라’는 권고가 많지만, 처지가 워낙 급할 경우엔 원금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당장 살림살이에 압박이 오는 상황에서 ‘6개월 있으면 오를 것’이라는 식으로 기다리기만 하다간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분산 환매’라는 대안이 가능하다. 먼저, 본인의 펀드 투자 규모를 어느 만큼 줄일지 가능한 뒤 지수대별로 조금씩 환매에 현금화하는 전략이다. 또 여러 펀드 사이에 환매 우선순위를 정해 평가손실이 적은 혼합형이나 선진국 펀드 등을 먼저 환매할 수 있다. 이를테면 1천 만원을 건지겠다고 했을 때 지수가 50포인트 오를 때마다 250만원씩 네 번에 나눠 환매하는 식이다.



kimyh@hani.co.kr

신한은행 김은정 분담자점 피비(PB)팀장은 “투자할 때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분산 투자를 하는 것처럼 환매할 때도 위험 회피를 위해 분산환매가 가능하다”며 “장기로 가져갈 것은 잊어버리고 있으면 되고,

먼저 찾아 쓸 펀드를 골라 나눠 환매하는 차분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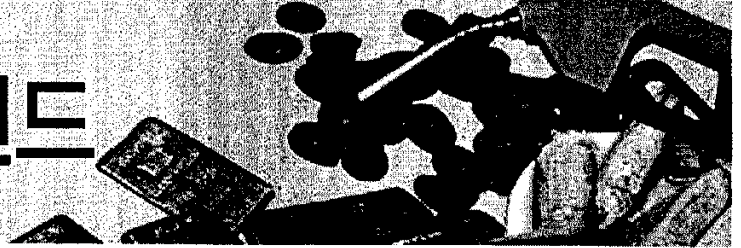
당장 돈이 필요한 투자자가 아니라면 포트폴리오 조정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얼마간의 대가를 치르면서 펀드를 갈

아타라는 말이다. 특히,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중국 투자 비중이 너무 높다. 단순히 중국에만 투자하는 펀드가 전체 국외주식형 펀드의 31%에 이르고, 다분 신흥시장과 함께 들어간 것까지 치면 45% 수준이다. 현대증권 오은수 펀드리서치팀 수석 연구원은 “지금은 많이 먹는 쪽이 아니라 지키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변동성이 큰 쪽에서 좀더 안정적인 쪽으로 자산을 옮긴다는 차원에서 펀드 구성을 바꾸고 저축은행 정기예금과 같은 확정금리형 상품에도 일부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펀드 갈아타기에 있어선 선진국 대상 투자 비중이 높은 글로벌 펀드나 자산배분펀드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산간, 국가간 분산이 많이 돼 있어 변동성이 작은 안정적인 펀드들이다. 가치주 펀드나 배당주펀드도 안정적이다. 대우증권 이병훈 펀드리서치팀장은 “3년 이상 장기투자가 가능하다면 기본적으로 보유 전략을 권하고 있다”며 “1년 미만의 단기투자자라면 약간씩 반등할 때마다 나눠 환매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정현 기자 blue@hani.co.kr

고꾸라진 원자재 펀드



전 세계 경기가 침체에 돌입하고 수요가 감소하며 원자재가격도 주가 못지않게 급락하고 있다. 한때 배럴당 150달러 인근까지 올랐던 원유가격이 80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등 금을 제외한 거의 모든 원자재들이 경기둔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유가격이 200달러까지 갈 것이라고 주장하던 골드만삭스도 최근 예상가격을 50달러로 확 낮췄다.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면서 원자재 펀드들의 수익률도 그다지 좋지 않다. 투자자 입장에선 점점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동안 원자재가격이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투자할 경우에 관련지수에 투자하는지 관련주식에 투자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하반기부터 시작된 원자재값 하락 계속 최근 펀드 수익률, 해외주식형보다 나빠 “장기투자 고려할만 하지만 단기는 신중을”

◆원자재가격 한동안 하락세

올 하반기부터 시작된 원자재가격 하락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에는 주가 최대 폭락이 화제였지만 원자재 역시 이에 못지않았다. 19개 원자재를 기초로 하는 로이터-제프리 CRB지수는 지난 10일 하루 동안에만 6.6% 하락, 사상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따르면, 지난 10월 초 한 주간 순매수 규모가 지난 2월 말과 비교했을 때 82%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유·알루미늄·대두 등의 가격하락은 관련 기업 실적과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의 세계최대 알루미늄 업체 알코아는 최근 지난 3분기 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52%나 감소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미국의 세계최대 석유회

사 엑손모빌주는 지난 8월 1일 79.72달러에서 지난 14일 72.46달러로 9.11% 하락했다. 한때 원자재 시장으로 각광받은 러시아·브라질의 주식시장도 고점 대비 각각 65%·44%씩 빠졌다.

하지만 미국 경제가 한동안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원자재시장 전망을 어둡게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미국 경제성장률은 0.1%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고, 블룸버그도 이코노미스트 설문조사를 통해 내년 미국 성장률을 1.2%로 전망했다.

◆원자재펀드 수익률도 별로

원자재펀드 수익률은 최근 원자재 가격의 급락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원자재펀드의 연초 이후(-34.68%)·1년 평균수익률(-32.44%)은

주요 원자재펀드 수익률

(%, 14일 기준)

펀드명	운용사명	1개월	3개월	6개월	연초
SH골드파생상품 1-A	SH운용	8.07	-28.27	-29.62	-23.15
미래에셋메트로저스농산물지수종류형파생상품(C-B)	미래에셋메트로	-21.52	-35.29	-35.04	-28.75
우리Commodity인덱스플러스파생상품1Class C1	우리CS운용	-19.08	-37.21	-28.84	-17.85
산은글로벌저스에그리인덱스파생 1CLASSA	산은운용	-24.97	-37.59	-35.93	
도이체DWS프리미어에그리비즈니스주식C-I	도이체운용	-30.60	-37.81	-39.80	-40.91
도이체DWS프리미어에그리비즈니스주식clsA	도이체운용	-30.66	-37.99	-40.11	-41.38
가온SG골드마이너주식자A클래스	가온SG운용	-2.35	-38.57	-40.91	-37.85
미래에셋메트로저스Commodity인덱스파생상품1ClassA	미래에셋메트로	-21.77	-40.88	-32.26	-20.27
JP모건천연자원주식종류형자 1A	제이피모건	-26.24	-43.78	-43.67	
우리CS글로벌천연자원주식ClassA 1	우리CS운용	-33.28	-46.19	-47.02	-46.94
슈로더이머징마켓커머티주식-자A종A	슈로더운용	-35.05	-53.00	-54.40	
프랭클린내츠헤럴리스주식형자A	프랭클린템플턴	-41.58	-54.28	-51.70	-51.23
해외주식형 평균		-23.19	-35.39	-39.71	-48.61

(제로인 3개월 수익률 순)

해외주식펀드의 연초 이후(-48.61%)·1년 평균수익률(-51.38%)을 훨씬 앞섰다. 그러나 6개월 평균 수익률은 원자재펀드(-40.23%)가 해외주식 평균(-39.71%)보다 나았다. 3개월 수익률에서도 원자재펀드(-39.27%)는 해외주식형 평균(-35.39%)에 미치지 못했다. 그나마 안전자산으로 평가되는 금에 대한 수요가 몰려 금값이 급등하면서 금 관련 펀드 성적이 좋았던 탓에 1개월 평균수익률에선 해외주식형 평균을 앞섰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지난 9일 온스당 913.25달러까지 하던 금값은 지난 13일 833.05달러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이를 만에 다시 842.46달러까지 오른 상태다. 이젠 원자재펀드 투자를 권하는 전문가들은 거의 남지 않았다. 최정원 현대

증권 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는 신형시장 원자재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품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3년 이상 길게 투자할 생각이면 고점에 비해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지금이 투자할 때이지만 투자기간을 짧게 본다면 신중히 고려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원자재펀드에 투자할 때 관련지수에 투자하는 펀드인지 아니면 관련 회사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인지 꼭 따져봐야 한다. 김휘곤 삼성증권 펀드연구원은 “관련지수에 투자하는 원자재펀드는 원자재가격을 비교적 충실히 반영하는 반면, 관련주식에 투자하는 원자재펀드는 글로벌 증시 상황이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형석 기자 cogito@chosun.com

CP금리 7% 육박... 7년9개월만에 최고

기업 자금조달 사정 악화...CD금리도 연일 급등

기업어음(CP) 금리가 거침없이 오르며 연 7%에 육박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의 공조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금융위기가 '최악의 국면'에서 벗어났지만 국내 자금시장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

15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CP(91일물 기준) 금리는 전날보다 0.08%포인트 오른 연 6.88%에 마감했다. 이는 2001년 1월 이후 7년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CP 금리는 지난달 중순 미국 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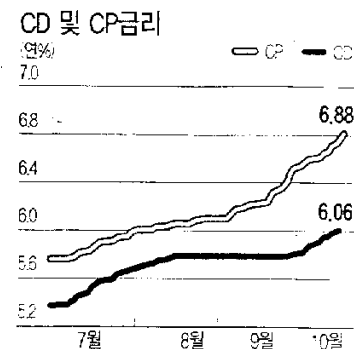
자은행인 리먼브러더스의 파산보호 신청 전 연 6.22% 수준이었으나 이후 급등세를 타기 시작해 약 한 달 만에 0.66%포인트 올랐다. CP는 신용도가 높은 기업들이 무담보로 발행하며 금융회사는 이를 일반 고객들에게 판매한다. CP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기업들의 자금조달 사정이 그만큼 나빠진다는 의미다.

회사채 금리도 3년 만기 회사채(AA- 기준)의 경우 이날 연 7.90%에 마감했다. 전날보다는 0.04%포

인트 내렸지만 리먼 사태 직후 연 7.09%와 비교하면 0.81%포인트나 뛰었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도 이날 0.03%포인트 올라 연 6.06%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9월 하순(연 5.79%)과 비교하면 한 달도 안 돼 0.27%포인트나 올랐다. 리먼사태 이후 만기가 비슷한 은행 채 3개월물 금리가 쯤췌 뛰면서 CD 금리도 덩달아 상승세를 타고 있다.

반면 한은이 최근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하면서 국고채 금리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3년 만기 국



고채 금리는 0.11%포인트 내린 연 5.17%에 마감했다.

박종연 우리투자증권 채권애널리스트는 "방에 불을 피우면 옷목(국고채)은 금방 따뜻해지지만 아랫목(비정부채)은 여전히 차가운 것과 같은 이치"라며 "크레디트물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자산운용사, 환율급등 부추겼다

해외 펀드 손실 줄이려고
을 100억달러 넘게 사들여

자산운용사들이 올 들어 주식시장 급락으로 해외 주식형펀드의 손실이 커지자 100억달러 넘게 순매수해 원·달러 환율 급등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해 달러 수요가 거의 없었던 자산운용사들은 올 들어 주가 하락으로 자산가치가 줄어든 해외 주식형펀드의 환위험해지(위험회피) 비율을 낮추기 위해 100억달러 이상 매수한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1328.10원으로 폭등한 지난 7일에는 서울 외환시장 거래량 50억달러 가량 가운데 자산운용사들의 수요가 7억달러나 됐다. 자산운용사들은 해외 주식형펀드를 설정하면서 환위험해지를 위해 전체 자산의 70~80%에 대해 선물환 매도를 해놓는다. 올 들어 해외 증시 하락으로 펀드 순자산이 급감하면서 자산운용사들은 선물환 매도를 통해 해지해놓은 물량이 줄어들자 달러를 사들였다.

자산운용사의 달러 매수세가 글로벌 증시가

급락해 펀드 손실이 커지는 시점에 집중되면서 원·달러 환율 급등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게 재정부의 분석이다. 재정부는 해외 주식형펀드(채권혼합형 포함) 설정액 67조원 중 70~80%가 환해징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산운용업계는 지난 9월 말 펀드의 순자산 가치(NAV)와 해지비용 등을 감안하면 이달 들어 지난 10일까지 42억달러(원·달러 환율 1260원 적용)를 사들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요 달러 매수 주체는 해외 주식형펀드의 규모

가 큰 미래에셋자산운용(약 20조원), 슈로더(8조~10조원), 신한BNP파리바(7조~8조원) 등으로 이들은 31억달러가량을 사들인 것으로 추산됐다. 해외 주식형펀드 규모가 큰 자산운용사 위주로 달러 매수가 진행된 셈이다.

재정부 최중구 금융국장은 지난 8일 “최근 환율 급등에는 해외펀드들이 선물환 매도로 해지해둔 물량을 줄이기 위해 선물환을 매수한 영향이 크다”고 밝힌 바 있다.

김주현기자

amicus@kyunghyang.com

경향신문

금융사 파산하면 '내 돈의 운명'은...

은행, 5천만원 보장...CD·은행채는 예외
보험, 납입료 아닌 해약 환급금만 보장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을 막기 위해 예금을 무제한 보호해주거나 예금 보장 한도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예금 보호와 관련된 관심과 문의가 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뱅크런이 나타날 조짐은 없다. 국내 은행들의 재무건전성이 1997년 말 외환위기 때에 비하면 매우 좋아진데다 기업들의 부채비율도 크게 낮아져 거액 여신의 부실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예금자 보호제도를 살펴보겠다.

◆내 예금·보험 보장되나
일반적으로 금융회사가 문을 닫으면 예금보호공사에서 고객 1인당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호해 준다. 은행 예금과 적금은 예보를 통해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장된다. 신탁과 새마을금고는 자체 기금에서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호해주고 있다.

국가기관인 우체국의 예금 상품은 정부가 지급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예금 전액이 보장된다. 우체국 보험도 전액 보장되지만 1인당 우체국 보험 가입 한도가 4000만원 이어서 실질적인 보장 한도는 적은

편이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발행하는 중소기업금융채권(중금채)과 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산금채)의 경우 명시적인 원리금 보호 규정은 없다. 하지만 '손실 발생시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원금을 떼일 염려는 없다고 봐도 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은행에서 파는 금융상품이라고 해서 모두 원리금 보장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양도성예금증서(CD)와 은행채는 예금보호 대상이 아니다.

보험상품은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약환급금'을 보장받는다. 실적 배당 상품인 변액보험, 단기 여행자 보험 같은 해약환급금이 없는 소멸성보험, 단체보험 등은 보험사 파산시 해약환급금을 보호받지 못한다.

◆은행 파산하면 이자는
예금 보호 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이다. 이때 원리금은 이자소득세가 부과되기 전 금액이다. 원리금 5000만원을 보장받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세금을 떼고 난 뒤 5000만원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만기시 받는 원리금을 5000만원 이하로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망하

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본래 약정한 금리를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예보가 정한 소정이자(15일 기준 연 3.5%)만 받기 때문이다. 가령 연 7% 이자를 주는 1년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했다가 만기를 6개월 남겨두고 금융회사가 문을 닫으면 1년 이자 지급 기준은 무조건 연 3.5%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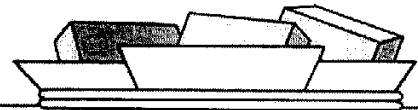
그러나 만기가 지난 뒤 금융회사가 파산하면 만기인 1년까지 금리는 연 7%를 적용받고,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소정이자 또는 은행이 약정한 만기 이후 이자 중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게 된다. 은행 파산시 원리금은 예금보험공사 업무 대행 기관인 국민은행에서, 저축은행 원리금은 농협

에서 각각 지급된다.

그동안 일부 저축은행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국내 은행이나 보험사가 파산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외환위기 이후 문을 닫은 동남은행이나 동화은행 등도 다른 은행에 인수됐고 중부생명이나 태평양생명 등 부실 보험사들도 다른 보험사로 계약이전을 했기 때문이다.

예보 관계자는 "예금 보장 한도는 보통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2.5~3배로 결정되는데 최근에 다른 나라들이 5배 이상으로 올리거나 무제한 보장해주고 있다"며 "한국에서는 아직 뱅크런 조짐이 없어 보장 한도 상향 조정에 대한 논의는 없다"고 말했다.

정연철 기자 surisuri@hankyung.com



국가별 예금보장한도 변화

* 한국은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장

보장한도 확대

- 미국(10만 → 25만 달러)
- 영국(3만5000 → 5만 파운드)
- EU 27개 회원국(2만 → 5만 유로)

무제한으로 보장변경

-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그리스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호주 뉴질랜드
- 일본(추진중)

국내 예금·보험 보장 한도

원리금 보장 안함

- 예금 및 채권: CD, 은행채
- 보험: 단기소멸성보험, 단체보험, 변액보험

5000만원(원리금)

- 예금 및 채권: 시중은행, 저축은행 예금, 신탁, 새마을금고 예금
- 보험: 저축성 보험, 해약 환급금이 있는 보장성보험, 파격보험

무제한

- 예금 및 채권: 우체국예금

자산社 펀드 통해 미분양 매입 추진

아파트 분양가 인하 조건 선별 지원

내주 종합 금융지원 대책 내놓기로

자산운용사에서 펀드를 조성한 뒤 이 자금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다음주쯤 미분양 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금융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건설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키 위해 분양가 인하를 전제로 선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5일 "펀드를 통한 미분양 해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회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선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국민이 정부 지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에 분양가 인하 등 조건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검토 중인 '미분양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투자자를 모아 펀드를 조성한 뒤 건설업체가 참여, 아파트 매입가격 등을 결정해 금융상품화하는 것이다.

미분양 펀드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면 해당 건설업체가 차액을 일부 보전하거나 되사들이도록 조건을 달아 투자 손실을 사전에 줄이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다. 건설업체 부도에 대비해 대주주보증이나 보증을 서고 실제 부도가 났을 때는 주택공사 등이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도 펀드상품 보완책으로

고려되고 있다.

건설업체도 분양가를 10% 이상 낮추는 등 자구 노력을 해야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미분양 펀드 상품을 설계할 때 건설업체도 참여시킬 것"이라며 "대신 건설업체는 분양가를 대폭 낮추는 조건으로 펀드 부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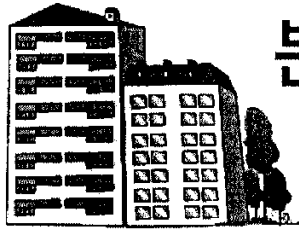
또 다른 대안으로는 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는데 정부가 일부 보증을 서는 방안과 특별 보증을 통해 건설업체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국책은행이나 시중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2조6000여억원 규모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의 상환 연장도 일괄 연장보다 선별 지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1조~2조원의 채권을 발행해 건설업체가 토지공사와 맺은 공공택지 분양 계약도 해약해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해약을 해주더라도 선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건설업체들이 쓰러져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지고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책을 다각도로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



분양가 내리면 미분양 매입

펀드 만들어 건설사에 자금지원

미분양 아파트 분양가를 내리는 조건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에 금융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건설업체가 분양 받은 공공택지 중 일부에 대해서는 해약할 수 있도록 해주고 다른 업체에 전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5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미분양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이 분양가 인하를 전제로 '미분양 펀드'를 통해 자금 지원을 받게 될 계획이다.

미분양 펀드는 자산운용사들이 만든다. 운용사가 투자자를 모아 펀드를 조성하면 이 펀드가 해당 아파트를 구입하는 식으로 건설업체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해당 펀드에는 건설업체들도 참여한다.

정부 관계자는 "건설업체 참여 과정에서 펀드가 매입하는 아파트 가격이 결정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들의 미분양 아파트 분양가가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펀드에 얼마나 많은 투자자들이 참여하느냐다. 건설업체들이 분양가를 낮춘다 하더라도 추후 환매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는 시각이 많으면 참여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투자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면 펀드에 아파트를 판매한 건설업

체가 하락분을 펀드에 보충하거나 되사들이도록 할 방침이다.

또 건설업체가 부도를 내 보장이 어려워질 것에 대비해 대한주택보증에 보증을 서기로 했다. 또 주택공사가 펀드가 보유한 아파트를 구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한편 미분양 펀드 투자자에게 장기 주식형 펀드 가입자처럼 소득공제 혜택을 주거나 금융종합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데 대해 일부 요구가 있으나 재정부가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펀드를 제외한 다른 유동성 지원 대책도 논의 중이다.

우선 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또 보증기관의 특별 보증을 통해 건설업체들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국책은행이나 시중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도덕적 해이가 유발되지 않도록 은행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선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분양 펀드를 제외한 다른 금융대책은 이미 발표한 중소기업 지원 대책과 궤를 같이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A31면
박유연 기자

□ 건설사 미분양 주택 매입해 준다는데...

시장성 없어 공적자금만 날릴수도

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펀드를 활용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환매조건부로 사주는 방안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자칫 하면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들인 미분양 물량이 공적자금 부실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미분양 아파트 축소를 위해 자산운용사들이 투자자를 모아 '미분양 펀드'를 조성하면 여기에 건설업체도 참여해 펀드의 아파트 매입 가격 등을 결정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펀드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지 않도록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면 해당 건설업체가 차액을 일부 보전하거나 되사들이는 조건도 첨부할 계획이다. 미분양 펀드에 대해서는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을 서며, 부도가 날 경우에는 대한주택공사 등이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환매조건부로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는 것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미분양 물량이 공식적으로 16만가구를 넘고 매수세가 실종된 상황에서 이 같은 정부 정책이 효력을 발휘할지 의문시되고 있다.

김신조 내외주건 대표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인 후에는 직접 판매나 임대를 하는 수밖에 없고, 다시 건설사에 돌려준다면 이는 미분양 아



민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 중인 주공 역시 미분양·미임대가 많아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주공이 공급한 아파트.

2008년 미분양 주택 현황

(단위=가구)

공공분양	계	8,649	준 공: 709
			미준공: 7,940
공공임대	계	502	준 공: 0
			미준공: 502
국민임대	계	15,259	준 공: 168
			미준공: 15,091
총 계	계	24,260	준 공: 727
			미준공: 23,533

※ 2008년 10월 15일 현재.

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다는 의미"라며 "문제는 극도로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아파트 판매나 임대가 가능하겠느냐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는 것인데 회수나 관리가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아파트 매입 주체로 거론하고 있는 주택공사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사들인 물량이 2226가구에 불과하다. 이 물량 가운데 재단장을 거쳐 임대된

물량은 719가구다.

또한 주택공사가 갖고 있는 미분양 물량은 현재 2만4260가구(준공 후 미분양은 727가구)에 달한다.

주택공사의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미분양주택 매입은 주택공사의 부실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

특히 미분양주택을 매입해 임대할 경우 기존에 분양받은 입주자와의 갈등이 커지는 측면도 있다. 주택공사가 사들인 부산 용당역 코오롱 하늘채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미분양으로 나오는 주택은 결국 시장에서 양호하거나 상대적으로 선호되는 주택이 아니다"며 "엄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결국 정부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주택을 끌어안으면서 국민 혈세로 건설업체를 지원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민 기자

28.1%

올해 외국인비중 2.8%p ↓

외국인이 올해 들어 국내 주식시장에서 30조원 이상 대거 매도하면서 외국인 보유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다.

국제금융센터와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 비중은 30.96%(코스닥·코스피시장 합계)에서 지난 14일 현재 28.12%로 2.84%포인트 하락했다.

국내 증시 외국인 비중은 주요 33개국 증시 외국인 비중(28.7%·지난해 말 기준)과 비슷한 수준에 달했다.

아시아 국가에서 외국인 비중은 대만이 31.3%, 태국이 31%였다. FTSE 선진국지수 편입 국가인 그리스는 40.3%, 프랑스는 40.7%, 미국은 12.6%를 기록했다.

“아직 진짜바닥 아니다”

전문가 “실물경기 침체 주가에 제대로 반영 안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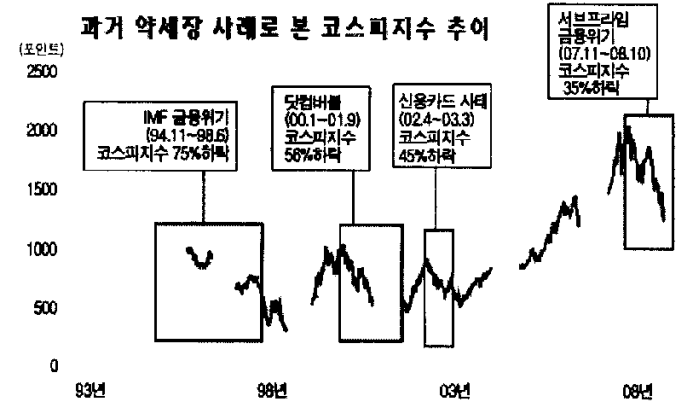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급락장이 지속되면서 과거 약세장과 비교할 때 언제쯤 바닥을 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미국발 금융위기와 비슷한 사태를 겪은 일본·한국의 지난 1990년대 약세장 사례를 예로 들며 아직 국내 증시의 진짜 바닥이 열굴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15일 푸르덴셜투자증권과 토러스증권이 분석한 한국과 일본 증시 약세장 사례를 살펴보면 주가 급락 이후 정부의 조치에 따른 안도렐리가 전개되지만 이후 실물 경기하락으로 더 큰 하락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경우가 한국의 IMF구제금융과 일본의 은행 공적자금 투입시기 이후 단기적인 안도렐리가 펼쳐졌으나 이후에는 전 저점을 뚫는 하락장이 진행됐던 사례다.

윤영진 푸르덴셜증권 연구원은 “외환위기로 1997년 12월 코스피지수가 350선까지 내려갔으나 구제금융 이후 1998년에는 580선까지 반등했다. 그러나 실물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국내총생산(GDP)이 저점을 찍었던 1998년 6월까지 지수는 270선까지 다시 급락했다”고 설명했다. 윤 연구원은 “내년 1·4분기를 GDP 성장

과거 약세장 보면 안도렐리후 더 큰 하락장 전개



률 저점으로 예상한다면 올해 내로 전 저점인 1,200선 지지 테스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본 역시 2000년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지난 10년 동안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1989년 12월 주가가 역사적 고점을 기록한 후 재합인 안하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결국 정부가 15개 대형은행에 7조5,000억엔이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대형은행들을 국유화하면서 안도렐리와 전 저점 테스트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주가의 진짜 바닥은 2000년 들어 실물 경기침체가 본

격적으로 반영된 후에야 드러났다.

이경수 토러스증권 탐장은 “역사적으로 비블형성→붕괴→부분적 대응책 마련→안도렐리→기업 및 은행도산→국유화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책→안도렐라→실물경기침체에 따른 대세하락의 순환이 반복돼왔다”고 지적했다. 이종우 HMC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아직까지 실물경기 침체가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침체의 깊이에 따라 주가의 바닥도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해진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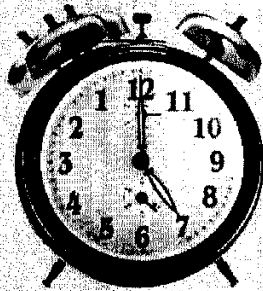
hasim@sed.co.kr

공포를 사들이는 '청개구리 투자법'

이름 급등했던 코스피지수가 15일 다시 2% 하락했다. 특별한 악재도 없었다. 세계 금융위기에 이은 실물경기 침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시장의 발목을 잡았다. 투자심리가 여전히 불안하다는 방증이다.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쏟림'이다. 주가가 오르면 사자로 몰리고, 반대로 떨어지면 팔지 못해 아우성이다. 삼성증권 투자전략센터 전종규 연구위원은 "공포가 지배하는 시장에선 군중심리에 휩쓸리기 쉽다"며 "이럴 때일수록 공포를 사고 탐욕을 과는 역발상 투자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두가 사려는 종목은 팔고 남들이 외면하는 종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다.

◆**많이 떨어진 종목**=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종목이 환율 급등 및 '키코(KIKO)' 피해주였다. 주로 원자재를 수입해 내수용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표적이 됐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가격이 올라 부담이 늘기 때문이다. 환 위험을 피해보려고 키코에 가입했던 수출 중소기업도 환율 급등의 희생양이 됐다. 그러나 환율이 내림세를 타면서 그동안 과도하게 떨어진 주가가 회복될 거라는 기대가 퍼지고 있다.

실적에 비해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진 종목도 관심을 돌 만하다. 더욱이 앞으로 3분기 실적이 나오면 실적 개선주가 돋보일 수 있다.



역발상 투자 유망 종목

추천 증권사	이유	종목
삼성	업황 바닥에서 반등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실적 대비 저평가	고려아연, 현대모비스, 한신, 세아제강
	악재 충분히 반영	호텔신라, 강원랜드, 외환은행
한화	환율 상승 피해주	대한항공, 호텔신라, 평산, 동국제강, 고려아연
	실적 대비 낙폭 과대	대한전선, 두산, 동양제철화학, 대우증권, 삼성엔지니어링
	KIKO 피해주	제이브이엔, 대일금속, 식모텍, 케이엠더블유, 성진지오택
우리투자	환율·유가 하락 수혜 내수주	현대백화점, 명원무역, 코오롱, 웅진씽크빅, 태광, 삼성물산

자료:각 증권사

반도체주, 급락한 KIKO주 관심 가져볼 만 환율·유가 하락으로 내수주 뜰 가능성도

◆**환율·유가 수혜 내수주**=우리투자증권은 환율과 국제 유가 하락의 수혜는 수출주보다 내수주가 받을 공산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주는 선진국 경기 침체로 성장동력이 약화할 우려가 있어서다. 이와 달리 내수주는 정부의 경기부양책 덕을 보는 데다 환율·유가가 떨어진 데 따른 소비 부양 효과도 기대된다는 것이다. 강현철 연구원은 "아직 국내에는 국제 유가 하락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가 하락 효과가 나타나고 정부의 경기 부양 조치가 가시화하면 얼어붙은 소비가 살아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악재 노출주**=금융위기에다 개별

악재까지 불거져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이다. 악재가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다면 이제부터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대표적인 게 강원랜드다. 카지노사업은 경기 바람을 안 탄다는 장점 때문에 8월까지만 해도 주가가 올랐다. 그러다 정부의 사행산업 규제와 카지노세 신설 방침에 이어 검찰 수사라는 돌출 악재를 만나면서 주가가 반토막이 됐다. 삼성증권 전 위원은 "돌출 악재의 영향은 단기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강원랜드 주가가 급락한 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환은행도 HSBC의 인수가 무산되면서 단기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올해 인천

공항 면세점을 연 호텔신라도 환율 급등에 따른 공항 이용객 수 감소로 호재가 악재로 작용했다.

반도체와 자동차는 업황 개선이 기대된다. 그동안 세계 반도체 회사들은 서로 마주보고 상대방이 피할 때까지 차를 모는 '치킨게임'을 벌여왔다. 그 여파로 반도체 값이 9개월째 내리막을 탔다. 이는 그동안 반도체 가격 사이클 가운데서도 가장 침체 기록이다. 최근 들어 일본·대만 업체들이 핸들을 꺾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머지않아 반도체 값이 바닥을 찍고 오름세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 속속 나온다. 세계적인 불황으로 자동차 역시 판매 부진을 겪고 있지만 소형차에 강점을 가진 현대차엔 오히려 기회가 될 거라는 분석도 있다.

정경민 기자

jkmo0@joongang.co.kr

개인 큰손들 증시로 돌아온다

박영옥-삼천리자전거, 정병양-서한 등 5%이상 매수

‘슈퍼개미’로 불리는 큰손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시장으로 컴백하고 있어 관심이다. 이들은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주가 급락기에도 불구하고, 대담하게 투자에 나서 일부 코스닥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는 최근 급락장을 이용해 삼천리자전거 지분 5.06%를 투자목적으로 장내매수했다. 그는 이와 함께 농기계업체인 대동공업과 삼천리자전거에서 분사된 고급 자전거 전문업체인 참좋은레저(옛 헬로스포츠) 지분도 각각 13.24%, 7.08%까지 확대했다. 박 대표는 증권사 지정장 출신 슈퍼개미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박 대표는 “국내 자전거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독보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 삼천리자전거가 유망하다고 본다”며 “경기침체는 1등기업엔 오히려 기회로 다가오고 주가

슈퍼개미가 최근 지분 5% 이상을 매수한 주요기업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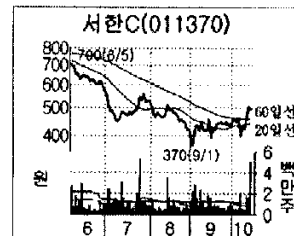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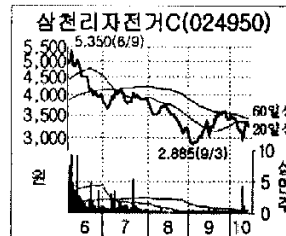
투자자	투자기업	보유지분	취득목적
정병양	서한	9.0	투자목적
박영옥	삼천리자전거	5.06	투자목적
김현철	아이디에스	5.06	투자목적
김제영	해빛정보	6.43	투자목적
김성문	삼성수산	5.21	경영참여

자료:금융감독원

도 크게 싸진 만큼 좋은 기회라고 판단해 투자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정병양 변호사는 최근 중소건설업체인 서한 주식 40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지난 9월 서한 지분 6.8%를 매수했다고 밝힌 정 변호사는 전날에는 9%까지 확대했다고 공시했다. 2006년부터 지난달까지 서한 사외이사를 지냈던 정 변호사가 사외이사를 그만둔 지날달 이후 지분을 확대하자 최대주주인 대왕레미콘 측도 보유지분을 12.77%로 늘리기도 했다.

정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는 “서한은 관공서 공사에서 매출이 80%가량 발생돼 최근 문제가 되



는 아파트 미분양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이 회사 사외이사로 지내면서 투자가 유망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김제영 테크포인트코리아 대표가 해빛정보 지분을 6.43% 취득했고, 자영업업을 하는 김현철 씨도 아이디에스 지분 5.06%를 매입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제영 대표는 “반도체쪽 사업을 하고 있어 해빛정보를 잘 아는데 최근 주가가 회사 가치에 비해 과도하게 떨어져 주가로서 지분을 확대했다”며 “회사와 합병을 앞두고 있는 대주주 읍트론텍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지분 확대 필요성을 느꼈다”고 설명

했다.

경영참여 목적으로 지분을 사들인 슈퍼개미도 있다.

자영업자인 김성문씨는 지난 9월 20일경부터 5억 5000만원을 들여 삼성수산 지분 5.21%를 장내매수해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삼성수산은 기존 최대주주인 쿨투가 보유 중이던 지분 16.9%가 담보제공에 따른 대물변제로 증발해 대주주가 없던 상황이었다.

김씨는 “회사가 이대로 가면 안되겠다고 판단해 경영참여 목적으로 투자했다”며 “향후 경영진의 행보를 보면서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형 기자 u20hankyung.com

한국경제

2008년 10월 16일 a27면

“살만한 종목 알려달라”... 끊겼던 문의 재개

증권사 일선 직원들, 애널에 조연 요청-손절매 시기 타진도

“살만한 종목을 알려줘요.”

증시를 괴롭혔던 글로벌 유동성 위기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자 증권사 일선 영업직원들이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들에게 유망종목을 추천해달라는 문의가 최근 다시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문의와 상담이 뜸 끊겼던 것과는 판판이다.

다만 아직은 경기불황 등으로 불안감이 여전한 점을 의식해 장세를 낙관하는 애널리스트들은 ‘신중론자’로 통하는 애널리스트에게 조언을 구하는 일이 많다는 것이 예전과 다른 변화라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 대형 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는 15일 “글로벌 증시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자 일선 지점 직원들로부터 유망종목을 추천해달라는 전화와 메시지가 늘어났다”며 “다소 위험을 감수하면서 저점매수를 시도하려는 증권팬들이 많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다른 증권사 애널리스트 B씨는 “강남지역 영업직원들은 대형주를 주로 문의하고, 다른 지역 직원들은 물량이 가벼운 코스닥종목에 관심을 보이는 게 눈에 띄는 특징”이라고 전했다. 그는 “해외주식의 경우 헐값이 된 미국 월가 금융업체 주식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일은 간혹 있지만 중국 등 이머징마켓과 관련된 문의는 거의 없다”고 귀띔했다.

반면 장세가 낙관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유망종목보다 손절매 타이밍을 타진하는 문의도 적지 않다. 이에서만 중앙종금증권 연구원은 “전날 강남지역 일선직원 50여명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가졌는데 이번 반응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 반응이 많았다”며 “이에 따라 유망주 문의보다 손절매 타이밍을 묻는 질문이 많았다”고 말했다.

신중론을 펴는 애널리스트가 인기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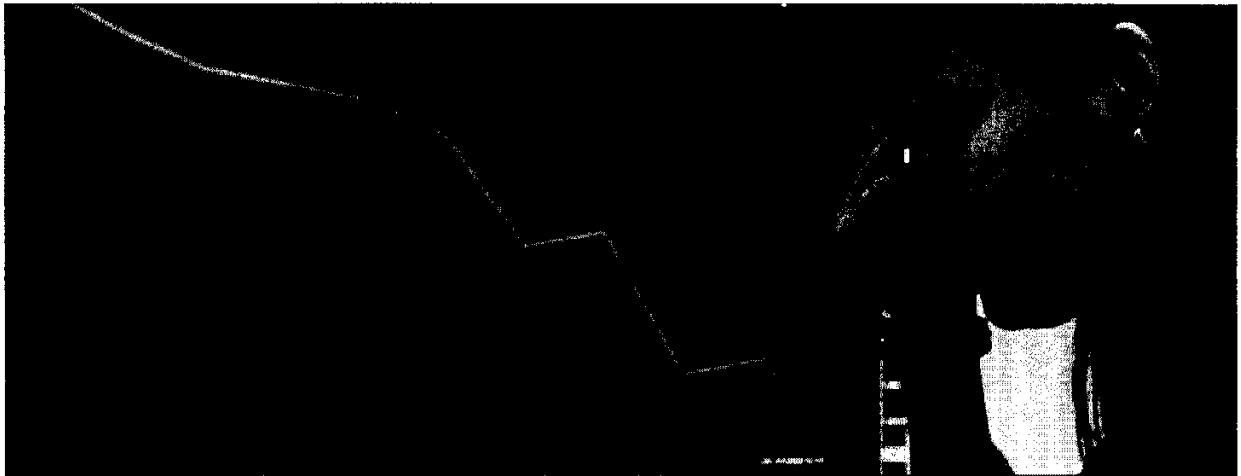


기회를 저점 매수보다 손절매 기회로 삼으려는 직원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가.

한 증권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는 “증시가 회복기미를 보이자 주변 사람들로부터 ‘주식과 펀드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는 일이 많지만 아직 장세를 확신하지 못해 위험자산인 주식은 당분간 피하라고 말해주고 있다”고 귀띔했다.

정경명 기자 longrun@hankyung.com

길어지는 증시 침체... 잠 못 이루는 증권사 영업사원들



최근 주가가 폭락하면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항의가 이어져 증권사 영업사원들은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소 직원이 폭락하는 증시 그래프 앞에서 근심에 젖어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또 항의전화냐” 벨 울릴때마다 화들짝

국내 증권사 지점의 영업사원 김모(39) 씨는 요즘 전화벨 소리만 들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전화의 대부분이 주식 및 펀드에 투자해 손실을 입은 투자자의 항의 전화다.

항의 내용도 “원금이 왜 손실났느냐”에서부터 “다른 증권사는 손실이 적는데 여기는 왜 이러냐” “손실이 더 커지기 전에 왜 환매 제의를 안 했느냐” 등 다양하다.

김 씨는 “지방의 한 증권사에 ‘투자자가 화염병을 들고 나타나 냐두리틀 했다’는 등 확인 안 된 흉흉한 소문까지 돌고 있다”며 “끓었던 담배도 다시 피우게 됐다”고 괴로워했다.

증시 침체가 1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증권사 지점에서 주식매매, 금융상품 판매 등을 담당하는 영업사원들이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지난해 10월 31일 2,064.85로 최고점을 찍은 뒤 이달 15일 1,340.28로 약 35% 폭락했다. 2003년 이후 장기간 증시 호황이 이어지다 미

국발(發)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라는 예상치 못한 ‘외부변수’로 증시가 폭락했기 때문에 고객에게 위험을 알리는 등 대처할 겨를도 없었다. 증시 침체가 세계적인 현상이라 국내 증시 투자로 입은 손실을 만회할 대안도

서 인력충원 공고가 나면 서둘러 지원해 경쟁률도 높아졌다. 투자자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되는 자리이기 때문.

현대증권 영동지점 박상우 대리는 “미국 증시에 따라 국내 증시 등락이 결정되는 만큼 자다가 오전 4시쯤에 깨서 미국 지표볼

나 영업사원에게 선택 증목을 알려주지만 기타 금융상품은 직원의 권유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증권업계에서는 투자자에게 손실 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고 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투자를 권했다는 자성(自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내 증권사 지점의 한 영업사원은 “지난해 말 주가지수가 2,000을 넘었을 때 개인적으로는 펀드 환매를 권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본사에서 영업점 실적을 매길 때 펀드 판매 실적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증권사의 영업사원 황모 씨는 “ELS, 펀드, 주식을 똑같이 100억 원어치 팔았더라도 개인 실적으로 인정되는 비율은 ELS가 가장 높아 성과급 책정 시 유리하다”며 “최근 ELS 손실 가능성이 커지면서 고객에게 손실 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자책감이 든다”고 말했다.

이지연 기자 chance@donga.com

불안한 마음에 오전 4시에 깨 美증시 확인

20%가 만성두통... ‘한직 발령’ 악몽까지

“실적 높이려 무리하게 투자 권유” 자성도

마땅치 않다.

국모닝신한증권 여의도지점 박상준 과장은 “영업사원의 20%는 만성 두통, 허리 통증 등 신경성 질환을 앓고 있다”며 “밤마다 한직으로 발령이 나거나 고객에게 항의를 듣는 악몽을 꾸는 동료도 많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본사에서 일하는 것을 ‘답답하다’고 느끼는 영업사원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본사에

확인하고 다시 잠을 자거나, 오전 2시까지 깨어 있으면서 확인한다. 그래야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최근 몇년 새 증권사에서 파는 금융상품이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뿔어카운트 등으로 다양해진 것도 투자자 항의가 늘어난 원인이다.

주식은 고객이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직접 투자하거

신설 증권·운용사는 그룹 전용금고?

밀어주기성 내부거래 줄이어

수백억씩 수조원대 거래... "장기 성장에 도움안돼"

증시 급등락으로 신설·인수 증권·운용사의 정착속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는 가운데 이들 회사와 계열사간 밀어주기성(!) 내부거래가 줄어 있고 있다. 사실상 그룹의 금고 역할을 하는 모양새다.

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신설 증권·운용사들은 자사가 속한 그룹내 계열사들과 수백억원에서 수조원대 금융거래를 진행하고 있다. 하이투자증권과 하이자산운용을 출범한 현대증권업그룹은 한도 설정이긴 하지만 이들 회사들과 3조원대 중반의 거래를 예고하고 있다.

현대증권업은 수익증권 거래를 위해 3조원의 금융거래한도를 설정한 사실을 지난 1일 공개했다. 또 현대미포조선은 4300억원의 수익증권 거래를 예고했고 현대삼호중공업은 100억원의

사모채권 신탁거래 개시 사실을 밝혔다. 이 회사들은 공통적으로 자금운용의 수익성 제고를 계열사와의 거래이유로 밝혔다.

현대차그룹도 HMC투자증권 밀어주기를 계속하고 있다. 현대차는 1800억원의 머니마켓펀드(MMF)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를 예고했고 기아차도 HMC증권을 통해 800억원의 RP 거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캐피탈도 900억원의 MMF 거래 사실을 공시했다.

자산운용사를 나란히 출범한 GS그룹과 LS그룹도 수백억원대 계열사내 거래를 진행하고 있다.

GS건설은 100억원의 MMF 거래와 100억원의 주식펀드상품 거래 사실을 공시했다. 안정적인 자금운용 및 수익성 제고가 거래목적이었다. GS건설은

대기업 신설(인수) 증권·운용사 계열내 거래현황

·자료: 9·10월 전자공시

그룹	회사	거래내역
현대차	현대차	HMC증권과 1800억원 MMF, RP 거래
	기아차	800억원 RP 거래
	현대캐피탈	900억원 MMF 거래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해투자증권, 운용과 3조원 수익증권 등 거래
	현대미포조선	4300억원 수익증권
	현대삼호중공업	100억원 사모채권신탁
GS	GS건설	GS운용과 100억원 MMF거래, 100억원 주식펀드 가입
LS	LS전선, LS산전	LS운용과 각각 500억원 MMF 거래
	LS네트웍스	100억원 MMF 거래

펀드가입창구(판매사)로는 우리투자증권과 LG투자증권을 선택해 안분하기도 했다.

LS그룹의 LS전선과 LS산전도 계열사인 LS자산운용에 각각 500억원의 MMF 운용을 맡겼다. 또 LS네트웍스는 100억원의 MMF 거래를 LS운용을 통해서 하고 있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아들은 금

용업에 진출할 당시 금융업의 성장성을 통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계열사의 거래 물아주기 관행이 이같은 포부를 퇴색시키고 있다"며 "초창기 자리잡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인 회사 성장에는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배성민 기자 baesm@

파이낸셜 뉴스

2008년 10월 16일 035면

증권사 사회공헌 '김밥할머니'보다 못해?

자산총액 상위 5개사 중 3개사 작년보다 지원액 감소

지난해 증권사들은 증시호황 국면에서 순이익을 크게 늘렸으나 사회공헌 활동에는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신하용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산총액 상위 5개 증권사 중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제외한 3개 증권사의 지난해 사회공헌활동 지원액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삼성증권을 제외한 4개 증권사의 순이익대비 사회공헌 지원액 비율은 0.1~0.2%로 극히 미미했다.

지난해 증권사들은 코스피지수 2000 돌파에 힘입어 호황기를 맞았지만 두드러진 주머니 사정과 달리 사회공헌에는 인색했다는 평가다.

신 의원은 "증권사들이 국내에서 수익을 올리는데 급급하고 기부에는 인색하다"며 "금융회사들이 지역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기부 혹은 재투

자 방식으로 해당 지역에 기여하도록 하는 지역금융활성화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양증권금융증권의 경우 지난해 1조3290억9300만원의 매출액을 기록, 지난 2006년(9102억2200만원) 대비 46.02%가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1757억74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41.55% 증가했다. 하지만 2006년 58억6000만원에 달하던 사회공헌활동지원액은 3억4000만원으로 감소했다.

동양증권금융증권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금감원에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투신안정기금으로 출연된 51억3000만원가량이 누락됐다"며 "이 때문에 사회공헌금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 착시현상이 나타났다"고 변론했다.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이 1년새 각 28.82%, 52.44%나 급증한 우리투자증권도 사회공헌활동지원액은 2006년(4억8300만원)보다 1억

4900만원 줄여 3억3400만원에 그쳤다. 또 대우증권도 지난해 매출액이 2조7529억7300만원으로 2006년(1조8882억5000만원)에 비해 48.15% 늘고, 당기순이익도 4461억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69% 늘었지만 사회공헌활동지원액은 4000만원 삭감했다.

2006년 90억원 규모의 투신안정기금 출연으로 94억7500만원의 대규모 사회공헌활동지원액을 기록했던 한국투자증권은 8억9900만원으로 투신안정기금을 제외한 지원액이 늘었지만 순이익대비 지원액 비율 상으로는 0.286%에 머물렀다. 대형사 중에서는 삼성증권이 그나마 가장 활발하게 사회공헌에 나섰다. 삼성증권은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보다 각 42.43%, 75.39% 늘었고 사회공헌활동지원액도 2006년 96억7700만원에서 127억1100만원으로 늘었다.

always@nnews.com | 안현덕기자

HSBC·도이체뱅크·JP모건등 외국 금융사

국내銀 신용공여한도 크게 줄여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를 비롯한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금융안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외국 금융회사들이 국내 은행권에 대한 신용공여한도(크레딧 라인)를 급격히 줄여나가고 있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HSBC·도이체뱅크·JP모건 등 외국 금융회사들이 최근 국내 은행들에 추가로 신용공여한도를 축소하겠다고 통보하는 한편 직원들을 보내 국내 은행의 유동성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신용공여한도는 일종의 마이너스 대출로 한도가 줄어든다는 것은 국내 은행들의 외화 유동성축소로 이어지게 된다.

기업은행의 한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외국 금융회사들이 국내 은행들의 신용공여한도를 줄이고 있다"며 "지난해와 비교하면 30~40%가량 줄어든 상태"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의 한 관계자도 "최근 외국 금융사들로부터 신용공여한도를 조정

지난해보다 30~40%나 축소

신용경색후 1,200억弗 수준

직원파견 유동성도 직접 점검

하자는 협의 요청이 늘고 있다"며 "다른 시중은행들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리먼브러더스 파산 등으로 신용경색이 일어나기 전만 해도 국내 은행들이 외국 금융사들과 유지하고 있던 신용공여한도는 총 2,000억~3,000억달러였지만 지금은 1,200억달러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외국 금융사들이 국내 은행의 유동성을 직접 조사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신한은행과 기업은행 등은 최근 외국 금융사 관계자가 은행을 방문해 유동성 상황을 점검했다.

전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조금씩 안

정되는 상황에서 외국 금융회사들이 국내 은행의 신용공여한도를 줄이는 것은 스스로 유동성을 축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외국 금융회사들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유동성을 줄여왔지만 은행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신용공여한도를 대폭 줄이고 있는 것이다. 외국 금융회사들은 신용공여한도 축소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추가적인 은행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내의 경우 심리적인 이유로 외화 유동성 문제가 발생한 만큼 정부의 추가 지원은 '터무니없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장재철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미국 등 다른 나라와 우리의 상황은 다르다"며 "금융 부실이 우려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설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김영필기자 susopa@sed.co.kr

매일경제

2008년 10월 16일 a12면

“산업은행 민영화 속도조절”

전광우 금융위원장, 韓銀 금리 신축 대응 여지 있어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시장 여건을 감안해 산업은행 지분 매각 시점을 늦출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것과 관련해 추가 인하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1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산업은행 민영화 관련법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우려하는)중소기업 금융 지원이나 금융시장 안전판 역할은 새로 설립되는 한국개발펀드(KDF)를 통해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위원장은 “실제 산업은행 지분 매각은 시장 여건을 감안해서 적절히 조정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상황에 따라 전체 국책

은행 민영화 속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당초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일부 지분을 연내 매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중시 폭락으로 상황이 어렵게 됐다. 산업은행에 대해서도 현재와 같은 시장 상황하에서 제값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금융위 판단이다. 이에 따라 최초 지분 매각 시점이 늦어질 전망이다.

전 위원장은 금리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세계 각국이 금리를 인하하는 상황에서 국내적으로 중소기업·가계 부채 상황 부담 증가, 실물경기 위축 가능성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이 적극적이고 신축적으로 대응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어 “최근 국제통화기금



(IMF) 연차총회에서도 금리 인하가 주된 정책 권고사항이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가 5.0%에 달해 추가 인하 여지가 크

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증시에 대해 “조만간 장기 부자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발표한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서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미국은 15%, 일본은 20%까지 허용하고 있고, 유럽연합(EU)은 사전적 규제가 없다”며 “10%까지 늘린 것은 무리한 방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유연 기자

매경포럼

강만수 장관의 오렐 해저드



손헌덕
경제부장

말을 적게 해서 손해 보는 일은 없다. 더더욱 자신이 하지 않은 말 때문에 곤란을 당하는 경우는 없다.

한국경제의 시련담을 맡고 있는 강만수 장관의 발언을 두고 말들이 많다. 강 장관은 억울하다고 하소연한다. 자신의 말을 잘못 전달한 언론에 불만을 호소하고, 잘못 해석한 시장에 분노한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장의 오해를 살 만한 말을 한 게 맞고, 언론을 비난하기에 앞서 보다 정제된, 또는 관련부처와 조율된 발언을 하는 게 옳다. 지금은 한마디 말 실수가 국운을 좌우할 수 있는 위기의 시기이기에 그렇다.

국제통화기금(IMF) 총회에 참석한 강 장관은 워싱턴 특파원과과의 간담회에

서 외환보유액이라는 민감한 이슈를 건드렸다.

특파원에게 재차 확인한 바로는 당시 강 장관의 정확한 발언은 “만기연장이 안 되는 (은행 달러채무) 부분은 외환보유액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었다.

개인적으로 강 장관 생각에 100% 동의한다.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는 일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은행 부도를 막는 일이다. 만약 은행이 달러채무를 갚지 못한다면 정부는 외환보유액을 활용해야 한다. 그게 외환보유액의 존재 의의다.

그러나 경제 현실은 이론보다는 훨씬 복잡한 법.

외환보유액으로 은행을 지원한다는 발언은 시장의 기대심리를 높여 놓았다. 은행들은 손쉽게 정부에 손을 내밀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아닌 게 아니라 은행들은 강 장관 발언을 계기로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워싱턴에 같이 간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중앙은행이 은행에 달러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건 원본적인 방침을 전한 것이지만 시장에서는 이견 노출로 받아들여졌다. 알뜰기도 하고 야속하기도 한 받

언이었다. 시장의 파장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순진하지는 않았을 텐데 화살은 이미 시위를 떠났다. 그 후 정부 한 고위 관계자 말대로 이를 ‘좋은 실수(nice mistake)’로 봉합할 수도 있었는데 결국 그렇게도 못했다. 그것도 실력이다.

환율과 관련한 강 장관의 발언 역시 정도를 벗어났다.

발자는 본 캠프를 통해 몇 차례 지적했지만 정책 당국자가 가격변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치명적인 해악이다. 말을 통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개인의 신뢰도를 손상시킨다.

강 장관은 지난주 말 워싱턴 특파원들에게 “13일부터 환율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그날 시장은 강 장관 말대로 움직였다. 그러나 단언컨대 강 장관의 발언은 두고두고 집이 될 것이다. 다행스럽게 환율이 계속 안정세를 보인다면야 면책이 될지 모르지만 후일 다시 오르기도 하는 날엔 강 장관에게 재앙으로 다가갈 것이다. 그는 ‘오렐 해저드’에 빠졌다.

더더욱 오해를 받은 만한 발언은 삼성경제연구소가 적정 환율로 예측한 달러당

1002원을 인용한 전이다. 참고용이었고 본인의 생각을 밝힌 것은 아니지만 매우 부적절하다. 시장에서 달러당 1002원을 타기팅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와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재무장관을 지낸 로버트 루빈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금융 독트린이라는 걸 만들었다. 그중 한 대목을 소개한다.

“정부 정책이 갖는 신뢰성이야말로 미국이나 G7, 국제금융기관들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그 나라의 전망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금 한국이 바로 그렇다. 강 장관이 아무리 선의로 얘기해도 시장의 불신을 낳고 있다. 정책의 신뢰성이 무너지고 있다. 지난 8일 은행장간담회에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자산을 조속히 매각하라”고 은행장들에게 촉구한 지극히 정당한 발언이 한국 은행들의 건전성 위기로 오해되는 것은 비극이다.

급기야 금융감독원이 골드만삭스를 통해 해외투자자들에게 국내 시중은행의 경영 상태를 소상히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 정부가 그렇게 해야 믿음을 줄 수 있다는 건 차라리 희극이다.

파이낸셜 뉴스

2008년 10월 16일 030면

윤태순 회장, 세계자산운용협 이사회-총회 위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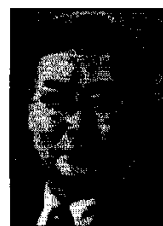
자산운용협회는 지난 6일부터 나흘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23차 세계자산운용협회(IIFA) 총회에서 윤태순 회장(사진)이 이사회 및 총회협의회 위원으로 선출됐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윤 회장은 올해부터 2010년까지 2년간 지역대표 이사를 맡게 되며 자산운용산업과 관련, 한

국과 아시아 지역의 발언권과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대표로 세계총회 이사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국가는 일본, 호주, 중국이며 이번에 한국이 선출됨에 따라 세계총회의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이사회 위원은 4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내년 IIFA 총회는 서울에서



10월 19일에 개최된다. 총회는 미주(5개국), 유럽(20개국), 아시아·오세아니아(11개국), 아프리카(1개국) 등 전

세계 35개국 자산운용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자산운용산업 관련 주제로 1985년 이후 매년 세계 각국에서 개최되고 있다.

lhug@fnnews.com | 안상미기자

현대證, 현정은 회장 직속체제로

오늘 등기이사 선임...김중웅 회장은 사임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은(사진)이 현대증권 경영을 직접 챙긴다.

현 회장은 그동안 현대증권 고문을 맡고 있었지만 16일 열리는 임시주총에서 비상근 등기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현 회장은 등기이사로 선임된 뒤 이사회 의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황기 현대그룹 전략기획본부 상무도 사내이사로 추가 선임될 것으로 전해졌다.

현 회장이 현대증권 등기이사로 들어옴에 따라 현대증권 김중웅 회장은 15일 사임했다.

이에 따라 현대증권은 지난 6월 선임된 최경수 공동 대표이사(사장) 체제에서 최 사장 단독 대표



이사 체제로 전환됐다.

이번 김 회장의 사임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현정은 그룹 회장이

다른 계열사처럼 현대증권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도"라고 관측했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현 회장의 등기이사 참여는 그룹의 현대증권에 대한 지배력 강화와 경영권 안정, 책임경영 구현을 위한 차원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승주 기자 fair@

매일경제

10월 16일 a25면

윤태순 자산운용협회장 세계자산운용協 이사로

지난 6~9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23차 세계자산운용협회(IIFA) 총회에서 윤태순 한국자산운용협회장이 세계총회 이사회 및 총회협의회 위원으로 선출됐다.

현재 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 대표로 세계총회 이사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 호주 중국 등이며 이번 윤 회장의 이사 선출로 이 지역 이사회 위원은 4명으로 늘었다.

윤 회장은 2010년까지 2년간 지역대표 이사를 맡게 된다.

IIFA는 세계 35개국 자산운용협회를 회원으로 하고 있으며 내년 10월 서울에서 총회가 개최된다.

한국경제

10월 16일 a27면

윤태순 자산운용협회장 세계자산운용협 이사 선임

윤태순 자산운용협회장(사진)이 최근 캐나다에서 열린 세계자산운용협회(IIFA) 총회에서 이사로 선출됐다. 윤 회



장은 일본 호주 중국 등과 함께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대표로 2년간 활동하게 된다. IIFA는 세계 35개국 자산운용협회가 가입해 있다.

한국경제

10월 16일 a29면

'5%보고' 의무 위반

금감원, 처벌 강화키로

앞으로 담보제공 주식 처분으로 지분율이 1% 이상 변동됐는 데도 관련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공시하지 않아 '5% 보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되는 등 임중처벌된다.

금감원은 15일 "올 들어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처분돼 대량 보유보고(5% 보고) 의무가 발생했는데도 보고하지 않거나 지연보고한 사례가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주식담보거래 등과 관련된 5% 보고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안내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사안이 중요할 경우 수사기관 통보 등의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내년 2월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보유 주식에 대한 주요 계약내용이 변경될 때도 보고의무가 발생한다.

금감원은 "5%보고 이후 담보·대차·신탁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계약체결 이후 주요내용이 바뀔 경우 이를 변경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주식대차거래시 주식 대여자는 보유 형태를 기존 '소유'에서 '소유에 준하는 보유(인도청구권)'로 변경보고해야 한다.

백경업 기자 kecorep@hankyung.com

한국경제

10월 16일 a37면

- ◆현대증권>부띠크모나코 지점장 이태규
- ◆토러스투자증권>WM본부장(상무) 이기현>상품기획팀장 김영재
- ◆조선일보>논설위원실 논설위원 박두철

매일경제

2008년 10월 16일 a26면

KIKO 손실기업 증시퇴출 보류

키코(KIKO) 등 통화파생상품 때문에 자본이 잠식된 상장기업은 퇴출이 보류된다. 따라서 이들은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상장이 폐지되는 '자동퇴출제도'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을 전망이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잠식이 발생한 상장법인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업 회생 가능성을 거래소 상장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같은 정책은 영업이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KIKO 등 환헤지 파생상품 손실로 자본잠식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한 회생 방안 마련 차원에서 이뤄졌다. 10월 중 거래소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규정 시행

세칙을 조기에 개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상장규정은 KIKO 등의 손실이 실현된 것인지, 기업은 과연 회생 가능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곧바로 자본잠식이 되면 상장을 폐지시키기 때문에 과도할 수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다만 관리종목(50% 이상 자본잠식 기업)은 투자자들의 주의환기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행대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KIKO를 포함한 통화파생상품 거래손실을 공시한 상장사는 모두 90개(코스피 53개, 코스닥 37개)다. 코스피에서 5680억원, 코스닥에서 5941억원 규모의 피해가 나왔다.

신현규 기자

매일경제

10월 16일 a26면

현대증권 김중웅회장 사임

현대증권은 김중웅 대표이사 회장(사진)이 임기 7개월여를 앞두고 중도 사임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작년 주총에서 임기 2년의 사내이사로 선임됐던 김 회장은 당초 내년 5월까지였다. 김 회장이 사임하는 것은 16일 열리는 임시 주총에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사내이사로 선임되기 때문이다.



“충격이 한 번에 끝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10년 전 외환위기 때가 기억나지 않으세요?”

우리나라 증시에서 버블(거품)경제 전문가로 통하는 장득수(46·사진) 슈로더투신운용 전무는 15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가 잠시 진정됐다고 해서 충격이 끝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외환위기 97년 11월 21일 이후 98년까지 주가 변화



“금융위기, 한 번의 충격으로 끝난 적 없어”

‘버블경제 전문가’ 장득수 슈로더투신운용 전무

“실물시장의 실적 드러나면 두 번째 충격 와
향후 1년간은 더 보수적으로 자산 운용해야”

장 전무는 “대공황이나 오일쇼크·아시아 외환위기·IT버블 등 경제 버블의 역사를 보면 주식이나 외환시장은 처음의 대폭락 뒤에 다시 그와 맞먹는 충격을 한 번쯤 겪는다”고 말했다. 장 전무는 버블 경제의 흥망사(史)를 다룬 ‘투자의 유혹’이란 책을 쓴 경제 위기 전문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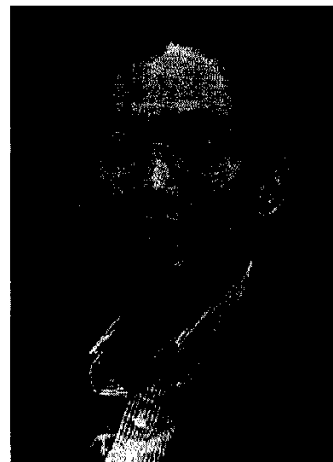
그는 “사람들은 미국발 금융위기를 대공황이나 IT버블과 비교하기도 하지만, 역대 버블 중 가장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한국이 포함된 아시아 외환위기”라고 말했다. 11년 전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는 금융회사와 기업의 과도한 차입과 부실에서 비롯됐다. 현재의 미국발(發) 금융위기도 파생상품을

이용한 금융분야의 무분별한 확장이 계기가 됐다.

장 전무는 “각국의 천문학적인 구제 금융책이 발표됐으니, 이제 시장의 눈은 실물경제로 옮겨질 것”이라며 “과거 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의 주가나 환율 그래프를 보면 앞으로의 전개과정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IMF 구제금융 도입을 발표한 1997년 11월 21일 코스피 종가는 506.7이었다. 패닉(공황)에 빠진 투자자들은 주식을 내던지면서 그해 12월 24일 주가는 351.45까지 떨어진다. 그러나 심리적 안정을 찾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이듬해 1월 30일 다시 558.33까지 올라간다.

장 전무는 “이런 것을 금융위기



뒤에 오는 ‘안도 랠리’라고 부른다”며 “그러나 실물시장의 실적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두 번째 충격이 온다”고 했다. 그의 말대로 코스피 지수는 외환위기 선언 7개월이 지난 뒤인 6월 16일에 280으로 최저점을 찍는다. 당시 2차 주가 급락은 경기침체 속에 외환위기가 일본까지 위협하면서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한 달 만에 65%나 급락하면서 일어났다.

그는 “아직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실물경기 위축은 예상하기 어렵고, GM 등 미국의 거대기업들의 운명도 알 수 없다”며 “외환위기 때 일본이 휘청거렸던 것처럼 서유럽 국가들이 5~6개월 후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국의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신흥시장의 경기 둔화 움직임도 주목해야 하며, 외외의 곳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장 전무는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리고, 한계기업들을 한꺼번에 정리했지만 미국은 정반대로 금리를 내린 뒤 국가가 적극 개입하고 있다”며 “다음 위기는 돈을 너무 많이 풀 대가로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앞으로 1년 정도는 지금보다 더 보수적으로 자산을 운용해야 한다”며 “필수 소비재에 투자한다든지 가장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조익준 기자 joyune@chosu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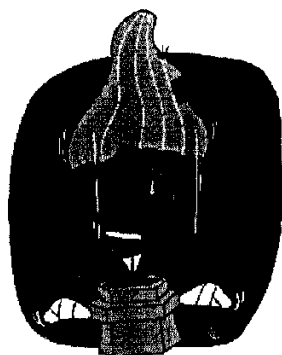
‘증시 폭락’ 애널리스트 위상도 동반추락

· 여의도 사랑방

중소형 A증권사의 리서치센터 직원들은 지난해 하반기에 뜨거웠던 ‘투표시즌’을 보냈다고 합니다. B대형 증권사에서 ‘아예 리서치센터 직원들을 송두리째 영입하겠다’는 제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B증권사는 당시 증시 호황 속에서 리서치센터 강화에 나섰다 애널리스트를 1명씩 뽑기보다 차라리 ‘집단 영입’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A증권사 직원들은 회사 대주주가 바뀌는 과정에서 미래에 불안함을 느끼던 터라 제안에 솔깃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A리서치센터 직원들은 이 안건을 놓고 며칠씩 투표를 거듭하며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행복한 고민은 슬픈 현실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한 애널리스트의 어정쩡한 입지는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 줍니다. 이 애널리스트는 다른 증권사로부터 “지금 받는 것보다 배가량 더 줄 테니 우리 쪽으로 와라”는 제안을 받고 고민을 거듭한 끝에 옮기기로 마음



호황때 몸값상승 즐기다

금락장속 구조조정 눈앞

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증시가 폭락했고 제안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그는 현재 다니는 증권사에 도의상 “다음달에 회사를 옮길 테니 후임자를 찾으시라”고 말해 놓았는데 난처하게 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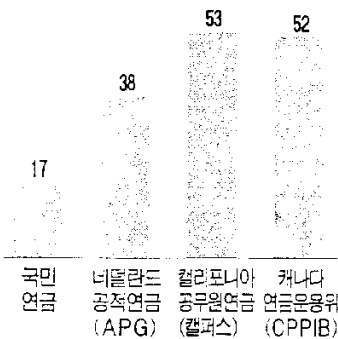
리서치센터는 직접 수익을 창출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종목을 분석·추천하고 증시흐름을 제시하는 지원부서죠. 최고경영자(CEO)의 판단에 따라 필요할 경우 가장 먼저 구조조정을 하는 부서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금락장 속에서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가 크게 줄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늘 주가가 떨어지는데 뜬금없이 “지금 저점이니 당장 매수하라”고 제안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금락이 유가 국내요인도 아니고 글로벌 금융위기이니 미래 전망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 애널리스트는 “이제 국내 애널리스트 세계도 크게 변할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애널리스트시장의 자정이 진행될 것이란 얘기죠. 수요 급증에 따라 자질이 부족한 애널리스트들마저 버젓이 활동할 수 있었지만 이제 생존 능력을 검증받게 됐습니다. 재무제표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투자자 입장에서 애널리스트 구조조정은 일견 환영할 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골이 깊으면 산도 높듯이 이 추락 속에서 새로운 비상이 시작될 것입니다. 종목 발굴의 침병이자 증시흐름의 척후병인 애널리스트들은 새로운 ‘출격’을 예고하며 지금 이 어둠을 슬기롭게 헤쳐가리라 믿습니다. 이송제 기자 openeye@

주요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 (단위=%, 전체 기금 대비)



*국민연금은 올해 8월 말 기준, 나머지는 올해 3월 말 기준. 자료=복지부

‘국민연금 주식투자’ 국회의원 냉온탕 국감발언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연금이 올해 주식투자로 8조4800억여 원 손실을 보게 되자 국회의원 등은 국정감사를 통해 주식 비중을 늘리는 투자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주식투자 손실을 근거로 내세우며 채권 위주의 안정적 운용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부 학자와 투자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그동안 주식투자로 양호한 수익률을 내왔는데 금융위기 때 단기 수익률만을 갖고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수익률을 더 높이기 위해 채권 외주의 자산 구조를 주식 등으로 다양화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또 장기적 관점에서 주식투자 수익률이 채권보다 높다는 것은 이미 학계에서 인정된 사실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과거처럼 채권 위주로 수비적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다.

주가 오를땐 투자 늘리라 요구하고 손실나면 안전운용 안했다고 비난

◆8조원 손실에 국정감사 질타

228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은 올 1~8월 -0.99%의 운용 수익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 수익률이 7.05%에 이르렀던 점을 감안하면 실적이 악화된 셈이다. 수익률이 나빠진 가장 큰 원인은 주식 부문 손실.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국민연금은 올해 주식투자에서만 8조4800억원 손해를 봤다.

수익률이 저조해지자 지난 13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의 8월 말 현재 주식 부문 평균손실이 8조4800억여 원에 달

한다”며 “특히 리먼브러더스, 메릴린치, AIG, 프레디맥 등 최근 문제를 일으킨 회사들에 대한 투자에서 1194억원 손실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여야 의원들은 주식투자를 늘리기로 한 국민연금의 운용계획에 대해 수익성보다 안전성이 더 중심이 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주식 수익률 > 채권 수익률

이 같은 의원들 주장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시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이들은 우선 장기투자를 원칙으로 하는 국민연금에 대해 단기 수익률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또 장기적으

로 채권투자보다는 주식투자 수익률이 높다는 것도 이들의 논거다.

신진영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은 장기투자를 위주로 하고 당장 자산을 처분해야 하는 것도 아닌데 금융위기로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7~8개월의 수익률을 근거로 주식투자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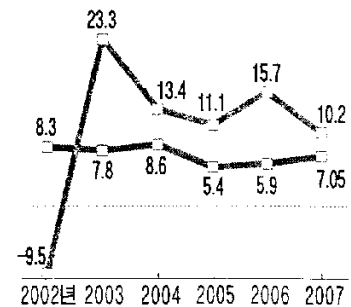
신 교수는 또 “투자론 관점에서 장기적인 수익률을 비교할 때 채권보다 주식이 우월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된 사실”이라며 “일시적인 수익률 저하를 빌미 삼아 주식투자 자체를 포기하자는 발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1988년 이후 올해 8월까지 국민연금의 채권 수익률은 5.32%지만 주식 수익률은 9.32%에 달했다. 특히 2003~2005·2007년에는 주식운용 수익률이 30% 이상으로 올라가기도 했다.

이원일 알파인츠GI 사장은 “국민연금의 투자 성과를 평가하려면 적어도 5~6년 동안은 살펴봐야 한다”며 “하의 주요 연기금들도 시장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주식투자에서 손실이 났지만 그 후 높은 수익률을 회복한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또 “재난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이 채권에 집중 투자해 수익률을 향상시킬 기회를 잃었다”며 “주식투자 비중을 높여야 온

주식 비중 높은 캘퍼스와 채권 비중 높은 국민연금 수익률 비교 (단위=%)

—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캘퍼스)
— 국민연금



*자료=복지부

다는 비판이 많았다”고 말했다.

주식 비중이 높은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캘퍼스)의 수익률은 2001년 정보기술(IT) 거품 붕괴 영향으로 -6.2%까지 추락했으나 2003년에는 23.3%로 회복하는 등 이후 계속 10% 이상을 기록했다.

◆해외 연기금, 국민연금보다 주식 비중 높아

해외 연기금의 주식 비중이 국민연금보다 높다는 점도 학계에서 국민연금의 주식투자를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근거로 내세우는 것 중 하나다. 캘퍼스는 전체 기금 중 주식투자 비중이 53%에 달한다. 또 네덜란드 공적연금(APG)의 주식투자 비중은 38%이고, 캐나다 연금운용위(CPPIB)는 52%를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비중은 17%에 그친다.

미국은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연금제도도 주식에 투자하지 못하고 국채 등의 채권에만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캘퍼스를 비롯한 나머지 공적연금들은 주식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김규식 기자

내년 예산 사상최대 조기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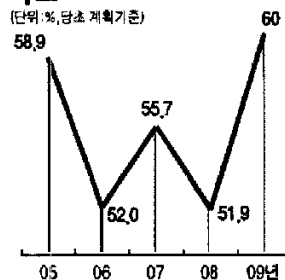
수도권 규제완화도 내달 발표등 대대적 경기부양책 준비

미국발 금융 쇼크가 실물경제 침체로 번지면서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상반기에 사상 최대 규모로 조기 집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오는 11월 중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등 수도권 규제완화책을 내놓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중소기업·건설업체에 대한 유동성 공급, 가계 지원 등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잇달아 발표할 예정이다.

15일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내년 경기를 전망해보니 상반기 성장률이 4%를 밑돈 뒤 하반기 밑에나 개선될 것"이라며 "이 같은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기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이 통과되면 상반기 재정 집행률을 6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역대 최고였던 지난 2005년의 58.9%보다 더 높은 상반기 조기집행 계획이다. 미국·유럽연합(EU)·중국·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경기부양에 나서는 추세에 맞춰 우리 정부도 실물경제 위기를 적극적인 재정확대를 통

연도별 상반기 재정집행률 목표



해 돌파하겠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관련기사 4·5·19면

정부는 또 일자리 증가 둔화세가 심상찮다고 보고 그동안 참여정부의 유산이라며 거부감을 보였던 재정지원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재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민간의 일자리 창출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며 "1조950억원이 책정된 내년 사회 서비스 일자리 예산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의 반발 등을 우려해 눈치를 보던 수도권 규제 완화도 가속도를 내고 있

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내외 경기여건이 워낙 나빠지고 있어 투자·일자리 창출 대책의 핵심인 수도권 규제 완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음달 중에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율·금리 상승, 경기침체로 경영난이 심화되는 기업을 위한 대책도 잇따라 발표된다. 정부는 펀드를 통해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거나 대출 또는 어음의 만기를 연장해주는 방안,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이나 채권을 발행할 때 신용보증기금이나 대한주택보증이 신용을 보증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환율변동성 확대로 파생상품 평가손 규모가 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기업을 위해 회계기준 변경을 도입하기로 사실상 확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회계 작성시 현시점에서 선물과 현물을 처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미래 환 평가손의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다.

/최형욱기자 choihuk@sed.co.kr

이종배기자 lbj@sed.co.kr

퇴직연금 예금자보호법 적용 추진

소득공제형 장기 주식형펀드 설립·기관 손절매 자제도 유도

증시

정부는 증시가 폭락장에서는 벗어났지만 불안한 국면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원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추가 증시안정대책 발표를 예정대로 내놓을 계획이다. 부동산 값이 하락한 가운데 주식마저 하락폭선이 지속될 경우 자산 디플레이션이 현실화될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장기 적립식 펀드 세제혜택 외에 퇴직연금 예금자보호법 적용, 기관의 손절매 자제 및 은행 펀드 수수료 인하 유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내에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 예금자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 중이다. 퇴직연금의 경우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아 활성화되지 않으면서 증권시장에서 기관투자자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예금자 보호를 적용할 때 보험료를 어떻게 할지 등 세부사항을 놓고 좀 더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기 적립식 펀드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한 방침은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한시적으로 장기주력마련저축처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형 장기 주식형 펀드'를 만드는 방안이다. 가입기간은 최소 3년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분기별 혹은 연간으로 제한

●정부가 강구 중인 증시 부양 대책

·퇴직연금 예금자 보호법 적용

·'소득공제형 장기 주식형 펀드' 설립

·증권사 신용 공여 한도 확대 검토

·기관 손절매 자제 및 은행 펀드 수수료 인하

을 둘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기존 장기 주식형 펀드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 혜택을 부여하는 것과 소득공제 외에 배당소득도 비과세·감면하는 것 등도 고려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와 별개로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 확대 여부도 검토 중이다. 또 기관의 손절매 자제 및 은행 펀드 수수료 인하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기관의 손절매 현황을 정기적으로 체크한다는 복안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국내 주식시장이 다소 안정을 되찾았으나 앞으로는 국내발 여파가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펀드런 가능성이 상존해 있는데다 실물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 수익성 악화, 그리고 그에 따른 증시 퇴출 등 국내 요인이 앞으로 우리 주식시장을 궁지로 몰지 않을까 잔뜩 긴장하고 있다. 금융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증권사들이 재무상태 악화 등을 이유로 주의종목으로 지정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며 "이제는 국내 실물경제 침체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할 때"라고 전했다.

이종배기자 jib@sed.co.kr

IMF때도 '한치 앞'만 보더니...

은행들, 아직 정신 못차렸나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에 과연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일까.

최근 한국 시중은행들의 재무 건전성이 좋지 않다는 외국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S&P와 피치, 무디스 등 해외 신용평가사들은 이달 들어 우리나라 은행들의 신용등급전망을 비관적으로 진단하며 은행들의 유동성(流動性·자금흐름)에 우려를 표명했다.

우리 정부도 은행들에 외화 자금을 직접 지원하고 나섰다. 이런 모습을 본 고객들 사이에서도 "은행들이 정말 관철은 거냐"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글로벌 뱅크가 되겠다'며 큰소리치던 은행들이 어쩌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을까.

◆경고 릴레이 외 자꾸 나오나

해외 신용평가사들은 한국 은행들에 대해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격적인 자산확대경쟁으로 인해 대출이 부실해졌다는 점, 외화자본 조달 여건이 악화돼 유동성 위험이 커졌다는 점, 이런 요인들에 대해 수익성과 건전성이 크게 나빠졌다는 점 등이다.

무디스는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지난 2일 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 등 국내 4대 은행의 신용등급(재무 건전성 등급) 전망을 안정적(positive)에서 부정적(negative)으로 낮췄다.

금융감독당국은 이에 대해 "과장된 경고"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금융시장에서는 이러한 지적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다. 그만큼 일

부 은행들의 자금난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최근 A은행이 자금부족으로 무려 8~9%대의 고금리 은행채(銀行債)를 발행하는가 하면, B은행은 불과 500만 달러의 자금이 부족해 해외 금융회사들 상대로 '금리 불문'을 제시하는 굴욕을 겪기도 했다. 또 C은

한 영업 관행의 영향이 컸다.

2004년 이후 은행들은 본업인 예대업무(예금 유치와 대출)보다는 펀드와 보험 판매에 열을 올렸다. 대출처럼 까다로운 관리를 하지 않아도 쉽게 수수료 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 경쟁도 치열하게 벌어졌다. 부동산 시장

◆정부 과보호가 무사안일 키워

현재 국내 은행들의 유동성은 글로벌 시장 변화에 취약한 구조를 안고 있다. 한국 금융시장의 개방속도에 맞춰서 해외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반면, 장기적인 관점의 자금 리스크(위험성) 관리를 소홀히 하고 단기 성과에 치중해 있다. 그러다 보니 글로벌 금융 경색 현상이 나타나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은행들의 위험관리에 구멍이 생긴 이유 중 하나는 정작 위기가 닥치면 정부가 결국 구해줄 것이란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빠져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경기 침체로 부동산 거품이 꺼질 조짐이 보이면서, 지난 5년간 급증한 부동산담보대출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국제연구소 관계자는 "은행들 사이에선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은행들이 모두 망하게 되는데 정부가 손놓고 있겠느냐'는 의식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은행들이 IMF의 원위를 겪고도 영업행태나 사고방식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비판에 대해 D은행의 자금담당부장은 "정부가 거시경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위기 상황이 닥치는 것인데, 이를 무조건 은행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정철환기자 plomat@chosun.com

'단기 수익'에만 집착... 몸집 불리기 경쟁

"돈 빌려쓰라"더니 "돈 맡겨달라" 아우성

해외 신용평가사들 잇따라 '경고음' 보내

은행은 지점마다 수십억~수백억원의 예금 유치 목표를 걸고 예금 끌어들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관계자는 "일부 은행은 밖에서도 돈이 안 들고, 안에서도 돈이 안도는 안팎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땅 짚고 헤엄치기 장사의 '땃'

은행들이 이렇게 된 까닭은 단기적인 수익에 집착해 예금 유치를 등한시하고, 몸집 불리기(대출 확대) 경쟁에 치중해 왔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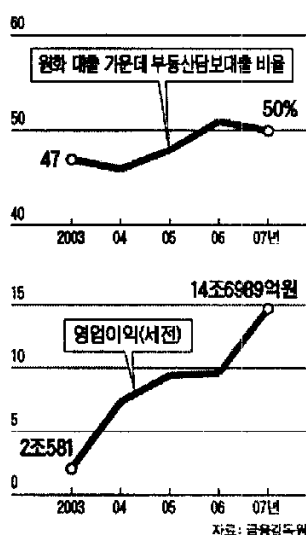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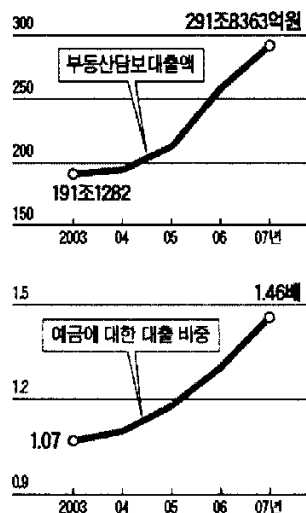
지난 5년여간 국내 은행들의 연간 영업이익은 2003년 2조581억원에서 2007년 14조6989억원으로 7배 이상 폭증했는데, 이는 단기 성과에 집중

호황으로 대출 수요가 넘쳐났고,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담보를 붙잡고 있으니 손해날 일이 없었다. 2003년 은행 전체 대출의 47%였던 부동산 담보 대출은 2006년 51%로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른바 '땅 짚고 헤엄치기' 영업을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은행장들이 나서서 과욕을 부렸다. A은행의 B행장은 "한 해 30조 규모로 자산을 늘리겠다"며 외형 경쟁에 불을 지피는가 하면, B은행의 C행장은 직접 지점들의 실적을 체크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이 와중에 아파트 중도금 대출금리를 연 4%대까지 떨어뜨리는 등 손해를 감수하며 고객 잡기에 나서는 은행도 나타났다.

국내 은행들의 경영 지표



자료: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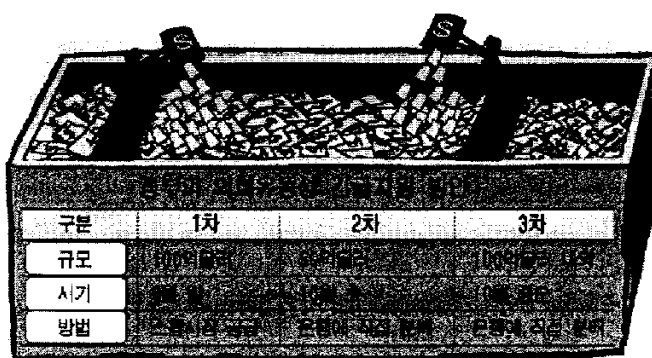
정부, 은행에 달러 더 푼다

100억달러 안팎
지원방안 곧 발표

정부가 은행권 달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로 100억달러 안팎의 외화유동성 공급방안을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중 발표한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150억달러의 외화유동성 공급으로는 은행들의 달러 자금난을 해소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추가대책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은행 자금부장들이 지난 13일 긴급 콘퍼런스를 통해 달러 지원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며 "이 자리에서 정부가 100억달러의 추가 유동성을 공급하는 안을 내놨다"고 말했다.

은행 자금부장들은 이 자리에서 시장 상황이 심각한 만큼 지원 규모가 많을수록 좋고, 시기도 가능한 한 빠르면 좋겠다고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확한 지원 규모는 시



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면서도 "조만간 유동성 추가지원안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가 말한 '조만간'의 의미는 이르면 이번주 말, 늦어도 다음 주 중으로 풀이된다.

지금 전달 청구로는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협의를 통해 두 은행 중 하나 또는 두 은행이 동시에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 조치에 앞서 정부는 외화자

금시장과 수출입은행을 통해 외화유동성 150억달러를 공급해왔다. 1차로 지난 9월 말부터 최근까지 외국환평행기금 100억달러를 외환스왑시장에 공급했고, 2차로 이달 초 수출입은행을 통해 50억달러를 시중은행에 직접 분배했다.

정부가 이번에 100억달러가량을 추가로 공급하면 정부의 총 외화유동성 지원 규모는 250억달러를 넘게 된다.

정부가 이처럼 달러를 직접 은행에 나눠주는 긴급 지원책을 쓰는 것은 시중은행이 겪고 있는 '달러 보릿고개'를 넘도록 돕기 위해서다.

이번주 초 미국과 유럽 주요국 중앙은행이 달러 무제한 공급 방안 등 금융위기 해소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쏟아내 달러 차입을 위한 주변 여건은 좋아졌다.

하지만 문제는 글로벌 금융회사가 실제 달러를 내놓기까지 한 달 이상 시차가 걸린다는 점이다. '장풍 속 달러모으기 운동'을 펼칠 정도로 심각한 달러난에 빠진 국내 은행들이 한 달 동안 달러 보릿고개를 겪을 경우 수출입용 무역금융 공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한 시중은행 자금담당 임원은 "정부가 이틀 시일 내에 달러를 풀 경우 일시적인 외화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고, 국제 시장이 풀릴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근·조시영 기자

市銀 단기 외화조달 숨통 트이나

신한·우리銀 美·홍콩서 각각 3개월·1개월짜리 차입 성공

리보·가산금리 하락등 시장여건도 호전
해외장기債는 여전... 내년이나 가능할듯

글로벌 본드발행 시장은 여전히 쾅쾅 열려붙어 있지만 미국·유럽 등 선진국의 금융시장 안정 조치에 힘입어 국내 은행권의 단기 외화조달은 다소 숨통이 트이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시중은행, 단기자금조달 여건 개선 조짐-지난 9월15일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달러 자금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자 시중은행들은 하루짜리(오버나이트) 달러 자금으로 연명해왔다. 1주일 이상의 차입은 아예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하지만 단기자금조달 여건이 서서히 개선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신한은행은 14일 미국 현지 은행으로부터 1,300만달러 규모의 3개월짜리 은행 간 돈을 들여왔다.

신한은행의 한 관계자는 "이번 차

입은 차환 발행이 아니라 신규 차입이라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며 "채권 발행 여건은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기간불을 중심으로 한 단기 시장은 호전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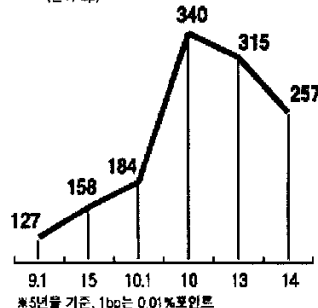
을 들어 단기를 금리는 리보에 200bp(1bp=0.01%포인트) 안팎의 가산금리를 줘야 했지만 이번에는 '리보+50bp'로 비교적 좋은 조건으로 평가된다.

우리은행도 리먼 사태 이후 처음으로 14일 홍콩 및 팔레시아계 은행에서 각각 2,800만달러, 2,000만달러의 1개월짜리 단기를 차입에 성공했다.

시장의 한 관계자는 "장기물 발행은 여전히 막혀 있지만 지난주 5%를 넘던 하루짜리 리보가 이번주 들어 하락세를 지속하며 2%대로 내려

외환채 CDS 프리미엄

(단위: bp)



오는 등 단기 자금시장은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채권 발행은 여전히 난망-단기 자금시장과는 달리 장기 채권시장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글로벌 정책공조로 금융시장이 다소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한국의 외환채 신용다폴트스왑(CDS) 프리미엄도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시중은행들의 해외 채권발행은 다소 시간이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유럽이 부실은행을 대거 국유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유화된 은행들이 해외채권 대입을 꺼릴 수밖에 없는데다 공모는 물론 사모 시장도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은 올해 해외 채권 발행은 사실상 종료됐다고 판단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되면 내년 초에나 해외채권 발행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올해 해외 장기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시중은행은 없을 것"이라며 "해외 채권은 내년 초나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 자금부의 한 관계자도 "유동성은 고사하고 발행시장 자체가 얼어붙어 있다"면서 "해외 유동성이 풀리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올해 안에는 해외채권 발행이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이병관기자 comeon@sed.co.kr

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취업자수 3년 7개월만에 최저... '고용 쇼크'

임시·일용직 이어 정규직도 '휘청'

제조·서비스업 동반부진 우려

9월 신규 취업자 수가 3년 7개월 만의 최저치인 11만 2000명을 기록한 것은 서비스업의 고용창출 능력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는 데다, 채고 증가와 세계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면서 제조업에서까지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업률은 3.0%로 작년 동월과 같았고 정년 실업률은 1년 전에 비해 0.9%포인트 떨어진 6.1%로 개선됐으나 구직 단념자가 급증하는 등 고용시장의 질은 오히려 악화됐다.

전문가들은 금융시장 불안의 여파가 실물 경제로 전이되면서 침체의 골을 더욱 깊게, 불황기를 점점 더 길게 만드는 경우를 걱정하고 있다.

◆ 상용근로자 고용도 불안

그동안은 자영업 중 도소매·음식숙박업이나 건설업 일용근로자 등 경기에 특별히 민감한 업종이 내수 침체의 직격탄을 맞아 고용이 크게 위축됐다. 9월에도 여전한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광우병 파동 여파로 한우농가 일부가 피해를 보면서 농림어업에서 2만 5000명의 고용이 줄었

고 건설업(-4만 7000명) 도소매음식숙박업(-6만명) 등에서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 종사상 지위별로 봐도 임시근로자(-8만 5000명)와 일용근로자(-6만 8000명) 수가 줄어드는 추세는 여전하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점차 상용근로자(1년 이상 고용계약을 맺은 근로자)로까지 고용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9월 47만 4000명 증가했던 상용근로자 수는 지난 7월(38만 1000명) 40만명대가 무너지더니 지난달에는 급기야 31만 8000명으로 30만명 선까지 무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괜찮은 일자리까지 불황의 여파를 받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있는 상용근로자 수가 줄어든다면 고용 불안이 소비 위축과 장기 침체로 연결되는 징후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 앞으로가 더 걱정

고용시장에서 저학력자와 고학력자,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이 동반 부진에 빠진 가운데 앞으로 이 같은 고용 부진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

이다. 미국발(發) 금융 시장 위기가 실물 경제로 확산되면 고용에서부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은 국내 금융기관들이 담보자산가치 하락으로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을 맞춰야 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대출을 회수하거나 신규 운영자금 대출을 중단할 경우 생겨날 충격이다. 송준혁 KDI 연구위원은 "자본 조달이 어려워지면 거기에 결합하는 노동 수요도 당연히 줄어들게 돼 있다"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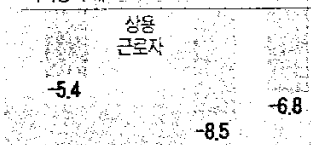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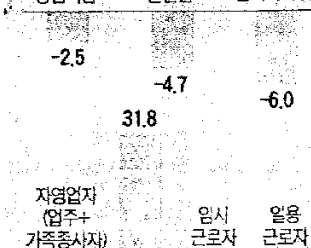
또 다른 경로는 선진국 경기 침체에 따른 간접 효과다. 수출기업이 차질을 빚으면 내수에 더 큰 주춤살을 만들어 낼 것이란 얘기다.

앞으로 다가올 '고용 쇼크'를 정부가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주훈 연구위원은 "정부가 불황기에 기존 일자리에서 밀려난 이들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면서 재교육을 통해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인력으로 재생산할 수 있도록 미리 시스템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기호 기자 kchoa@nhanmi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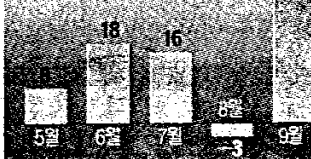
9월 주요 업종 및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수 증감

(단위: 만명, 전년 동월 대비)



구직단념자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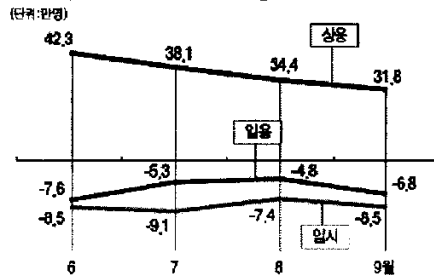
(단위: 천명, 전년 동월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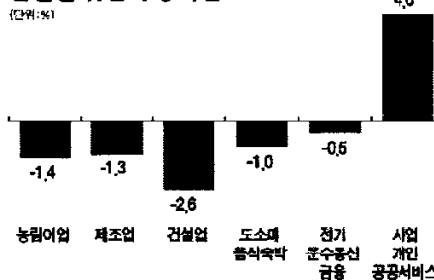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소비감소→경기위축 악순환 “내년 더 어렵다”

임금근로자 신규 일자리 증가 추이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 고용 쇼크, 우려가 현실로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더 어렵다는 전망이 잇따르면서 고용시장 개선은 내년도에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예측된다. 더구나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미국 등의 경기침체가 4~5년 갈 수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글로벌 경기 장기침체→국내 기업의 수출감소→기업 투자 부진→내수위축→고용악화’ 등의 악순환이 한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왔다.

임시·일용직 일자리 줄어 저소득층 더 타격 전문가들 “국내 경기침체 3~5년 지속될수도” “부동산 금융부실 차단·내수 활성화 나서야”

◇고용 쇼크, 저소득층 타격-현실이 된 고용 쇼크의 충격은 저소득층에서 훨씬 심하다. 지난 9월 고용동향을 보면 화이트칼라로 불리는 사무종사자는 20만명(6%) 늘었고 관리직으로 분류되는 전문기술 행정관리자도 3만2,000명(0.6%) 증가했다. 그러나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 종사자의 경우 6만4,000명(0.8%)이 줄었고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도 3만3,000명(1.9%), 서비스판매 종사자도 2만2,000명(0.4%) 줄어 상대적으로 저소득 직업군의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종사상 지위별로 봐도 비교적 안정적인 임금근로자는 1,622만1,000명으로 1.0% 증가했지만 자영업주 등 비임금 근로자는 751만3,000명으로 0.7% 감소했다. 또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31만8,000명(3.6%) 늘어난 데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안정도가 낮은 임시근로자는 8만5,000명(-1.7%), 일용근로자는 6만8,000명(-3.2%) 줄어 단순 일용직들이 경기악화에 따른 타격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았다.

◇국내외 경기침체 장기화할 듯-문제는 세계 주요 국가의 경기다. 금융위기가 실패경기로 번지면서 미국 등 주요 국가의 경기가 내년까지는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게 월가의 시각이다. 스티븐 로치 모건스탠리 아시아 담당 회장은 경기악화가 앞으로

로 3~5년간 계속 간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기품(비블)이 아직 다 꺼지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세계경기 둔화에 맞물려 내년 한국경제 역시 좋지 않지 않다고 보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나 LG경제연구원 등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3% 중반으로 낮춰 잡았다. 내수경기가 부진한데다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크게 떨어지면서 성장을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반적으로 내수와 수출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수출은 미국 경기 등 세계 경제가 회복될 기미가 안 보여 어려움을 겪고 내수는 가계부채·투자감소·고용부진 등으로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LG경제연구원은 “감세 등 정책효과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진이 지속될 것”이라며 “금융시장 불안이 어느 정도 완화되더라도 파급효과는 장기간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침체를 맞은 경기가 짧게는 1년, 길게는 세계 경제와 동조해 3~5년 더 갈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삼성경제연구소는 “내년 하반기를 전후해 빠른 회복세를 보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전제조건이 있다. 침체에 빠진 부동산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부동산 금융부실 확대를 차단하는 한편 현재 추진 중인 감세 및 규제완화 등과 더불어 적극적인 내수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야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철근기자 fusionj@sed.co.kr

삼성연구 “내년 3.6% 성장”

경상수지 소폭 흑자 반전...환율 1040원선 안정

삼성경제연구소는 내년 국내 경제 성장률이 3.6%에 그칠 전망이라고 15일 발표했다. 이는 앞서 내년 전망을 내놓은 LG경제연구원과 같은 수준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09년 세계 경제 및 국내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2007년 5.0%였던 경제성장률이 올해 4.4%로 낮아지는데 이어 내년에는 3.6%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면서 수출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내수 회복도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연구소는 수출 증가율이 올해 20.7%에서 내년에는 8.3%로,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해 2.5%에서 내년에는 2.2%로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기대 이상’의 성적을 올렸던 수출이 내년에는 급속히 둔화되는데 이어 올해 이미 침체에 빠진 내수는 내년엔 더욱 가라앉는다는 의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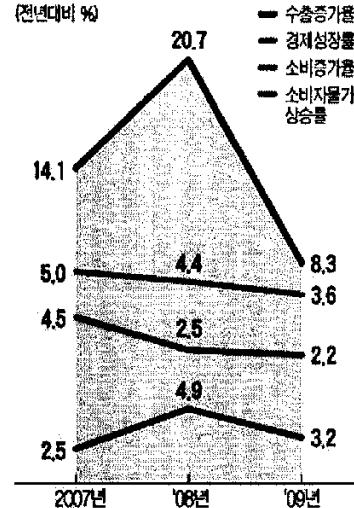
실업률은 올해 3.2%에서 내년에는 3.5%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 유가 등 원자재값 하락 덕분에 올해 4.9%에서 내년에는 3.2%로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내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물가관리목표 상한선(3.5%) 이내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경상수지는 올해 94억달러 적자에서 내년에는 6억달러 흑자로 반전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내년에는 연평균 1040원 선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게 이 연구소의 분석이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 실장은 “올해는 ‘물가나, 경기나’를 놓고 왔다갔다했지만 내년에는 경기쪽에 확실히 무게중심을 뒀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금리도 적극적

삼성연 주요 경제전망
(전년대비 %)



으로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세계경제 성장률은 1.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소는 “2009년 세계경제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그동안 세계경제의 성장을 주도하던 중국 인도 등 신흥국가의 경기 하강세도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FT 잇단 '한국 때리기' 왜?

"왜 이렇게 우리나라를 걱정하는 기사를 계속 신는지 모르겠다.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어떤 의도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다."

14일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기가실, 최종구 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이 분문을 터트렸다. 영국의 경제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가 14일자 신문에 한면 가득 실은 '가라앉는 느낌'(Sinking feeling)이라는 제목의 한국 관련 기사(사진) 때문이다. FT는 이 기사에서 한국의 △단기외채 △가계 부채 △여대율(여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 △경상수지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한국경제가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FT의 '한국 때리기'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일에는 "한국은 아시아에서 금융위기의 감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라고 보도했고 지난 8월 13일에는 칼럼을 통해 "한국이 1997년 외환위기 때와 비슷한 상황을 맞았다"고 전했다.

주요 외신 중에서도 FT의 한국경제 비판은 유독 심하다. FT가 한국에 대해 부정적 보도로 일관하는 이유는 뭘까. 첫째 영국계 경제지인 FT는 영국의 핵심산업인 국제금융업계의 이해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 외국자본의 자유로운 투자를 가로막는 국가에

■ 전문가들이 본 3가지 이유

- 1 "한국 反외자" 국제금융 이해 대변
- 2 한국에 비판적인 금융인이 취재원
- 3 군사정권이후 관계개선 노력 부족

는 비판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최근 수년간 한국에서는 '반 외자전서'의 결과로 비쳐질 수 있는 사건들이 잇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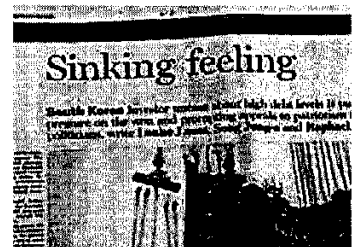
2005년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할 경우 자금출처를 밝히도록 하는 '5%룰'을 도입하자 FT는 외국자본의 투자를 저해하는 조치로 보고 '정신분열증 환자' '경제국수주의' 등의 표현까지 써가며 한국을 비난했다.

2006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문제가 논란이 됐을 때도 "한국은 투자자들에게 들어가는 것보다 나오는 것이 더 어렵다"고 지적했다. 2003~2004년 최대원 SK그룹 회장과 소버린자산운용(현 소버린글로벌)이 당시 SK의 경영권을 놓고 분쟁을 벌일 때 국내 여론이 '반 소버린' 쪽으로 모아진 데 대해서도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냈다.

2006년 영국계 자산운용사 헤트메스에 대해 한국 검찰이 주가조작 혐의로 수사(무죄 확정)를 벌이자 집중적으로 비판하며 자국 금융사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최근 영국계은행 HSBC의 외환은행 인수 시도를 놓고 정부가 판단을 미루면서 결국 인수 포기로 이어지게 한 것도 FT의 정서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취재원의 영향도 크다. FT 역시 언론인 만큼 취재원의 의견이 논조에 큰 영향을 미친다. FT의 논조가 한국에 비판적이라는 사실은 이들의 주요 취재원인 런던 또는 홍콩에 근거를 둔 영국 등 외국계 금융사 이코노미스트들이 한국에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음을 방증한다.

금융위기를 맞아 달러화 확보를 위해 한국자산을 팔고 있는 외국계 투자자들 입장에서선 이에 대한 '정당



화논리'가 필요하고 FT는 그 논리를 전파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셋째 과거 군사정권 때 정부의 정통성을 문제삼은 외신들과 한국정부 사이에 관계가 틀어진 뒤 그 잔재가 일부 남아 있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FT 등 영국계 외신에 대해서는 정부의 관계개선 노력이 미진했다는 지적이다. 베테랑급 외신기자는 "군사정권 당시에는 한국정부와 관계가 좋은 외신이 거의 없었다"며 "그런데 그후에도 관계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오히려 김영삼정부 때 외신과 정부의 관계가 가장 나빴다"고 말했다.

또 "한국의 역대 정부들이 미국계 외신들은 신경써 챙긴 반면 FT, 더타임스, BBS 등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영국계 외신들에는 다소 소홀했던 면이 있다"며 "정부가 스스로 이들 외신과 접촉을 강화하고 입장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배 기자 ppark@

“한국형 펀드슈퍼마켓 필요”

싱가포르 모델 주목
현지 전문가들 조언

싱가포르=김기훈 기자

지난 9월 말 금융위원회가 개인들의 펀드 판매 자문을 허용하고 여러 운용사의 다양한 펀드를 한 곳에서 판매하는 이른바 ‘펀드 슈퍼마켓’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펀드 판매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펀드 판매채널 다양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 등 선진금융시장의 펀드 판매채널 다양화 모델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싱가포르는 2006년 기준 협회 등록 자산운용사가 총 22개, 펀드설정액은 285억달러로 2524억달러에 달하는 한국 펀드시장의 10분의 1에 불과한 작은 시장이지만 펀드 판매채널시스템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한발 앞서 있다.

대표적인 펀드 슈퍼마켓으로는 아이패스트(IFAST)와 내비게이터(Navig

ator) 등이 있다. 이 중 IFAST는 약 9만명 이상의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우리 돈 기준 약 3조원 가량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싱가포르 내 최대 펀드 슈퍼마켓회사다.

IFAST의 국제사업부문을 맡고 있는 모흔밍(Moh Hon Meng) 전무는 “금융업종에 종사하다 은퇴한 이들이 전문성을 발휘해 IFA로 나서는 일이 늘면서 IFA의 펀드 슈퍼마켓을 통한 펀드 판매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싱가포르 내에는 IFAST와 같은 대형 펀드 슈퍼마켓 회사뿐 아니라 소수의 IFA들이 모여 만든 소규모 펀드 슈퍼마켓도 성업 중이다. 이중 전문자문 서비스 보수 외에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유명한 프로비던트(Provident)가 대표적이다.

국내외 펀드 전문가들은 한국이 성공적으로 펀드 슈퍼마켓을 도입하려면 일

단 투자자와 펀드판매사들의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지금껏 공짜(?)로 투자자문을 받던 투자자들이 자문수수료 지급을 꺼릴 가능성이 크고 자산운용사 역시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대형 펀드판매사들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무작정 외국의 시스템을 따라가다가는 자칫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에블린 고 프로비던트 부사장은 “싱가포르도 자문 수수료에 대한 초기 반감이 컸다”며 “펀드 슈퍼마켓이 성공을 거두려면 먼저 투자자들에게 IFA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시켜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모흔밍 전무는 “IFA가 펀드 슈퍼마켓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들과의 원만한 협조가 우선”이라며 “국내 상황에 맞는 전문 리서치 능력 확보와 서비스 질 향상 등이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core81@

아시안경제

“싱가포르에서 펀드 투자는 신나는 일”

■ IFA(투자자문인력)-펀드슈퍼마켓 현지 르포

펀드판매 13%가 은행-증권사들 간접 안받아
독립된 전문상담가들 맞춤형 알짜정보 제공
마켓서 400개 펀드 판매... 은행 수수료 아껴

9일 오후 2시, 싱가포르 도심에 위치한 독립투자자문회사인 프로비던트 사무실. 가정집 같은 아늑한 분위기로 꾸며진 이곳에서는 고객들의 펀드투자 상담이 한창이었다. 투자자들은 상담실에서 독립투자자문인력(IFA·Independent Financial Advisor)에게 펀드를 비롯해 보험,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상품에 대해 조언을 받고 있었다.

이 회사의 에블린 고 부사장은 “고객 한 명이 투자 결정을 내리기까지 보험, 법률, 주식 담당 IFA 등 여러 명의 전문가가 장기간 상담을 한다”며 “고객과의 오랜 관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나 이로 인한 소송 우려가 없고 고객들도 투자금의 1%인 자문 보수를 기꺼이 지불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투자자들과 펀드판매회사 간에 법적 분쟁이 늘고 있는 가운데 IFA와 펀드슈퍼마켓 방식을 도입해 이런 분쟁을 해결한 싱가포르의 펀드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에는 이르면 내년 2월부터 IFA와 펀드슈퍼마켓이 도입될 예정이다.

● 고객 만족도 높이기엔 중점

싱가포르는 불완전 판매를 막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2002년 IFA와 펀드슈퍼마켓 제도를 도입했다.

싱가포르에서도 2002년 이전에는 한국처럼 은행 지점 등을 통해 펀드가 주로 팔렸다. 그러나 IFA가 등장하면서 은행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기 시작했다. IFA는 은행이나 증권사에 속하지 않은 ‘판매 자문사’로 펀드 투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수나 수수료를 받는다.

판매실적에 따라 보수를 받는 한국과 달리 싱가포르에서는 투자대상금액 전체에 대해 보수를 지불한다. 자

연히 IFA도 판매량보다는 투자자의 성향에 맞는 펀드 발굴에 관심을 가진다. 불완전 판매도 줄었다.

펀드리서치 회사 셀룰리에 따르면 현재 싱가포르에 등록된 IFA는 2500명. IFA들이 모여 만든 회사가 69개나 활동하고 있다. 도입 초기에 이들을 통한 펀드 판매는 2% 수준에 머물렀지만 2007년 전체 펀드판매 시장의 13%까지 성장했다.

자산운용사의 다양한 펀드를 한곳에 모아서 판매하고 있는 ‘펀드슈퍼마켓’도 새로운 판매 채널이다. 보통 인터넷을 통해 운영되는데 자산운용사들은 은행이나 증권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펀드를 펀드슈퍼마켓에 공급한

다. 싱가포르의 펀드슈퍼마켓 아이패스트에는 50여 개 회사에서 받은 400여 개의 펀드가 진열돼 있다. 투자자들이 이 사이트를 통해 펀드에 가입하면 은행에 지불했던 선취판매수수료 3~5%를 아낄 수 있다.

● 국내 판매 창구도 다양해질까

국내 판매 창구는 은행과 증권사 지점이 장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점유율 상위 5개사의 판매 비중은 49.1%. 국내 주식형 펀드 두 개 가운데 한 개가 이곳에서 팔리는 셈이다.

지점에서 실적을 올리고 판매수수료를 얻는 데 급급하다 보니 상품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판매하거나,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도 판매수수료가 높으면 무조건 추천하고 보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급락장에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판매 기관에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국내에서도 판매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싱가포르=이서현 기자 balika7@donga.com

매일경제

2008년 10월 16일 a16면

S&P “7개 금융사 부정적 관찰대상”

외화유동성 부족·수익성 하락 우려

국내 은행들의 신용등급이 다시 부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15일 “국민은행 등 7개 한국 금융회사를 부정적 관찰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당장 신용등급을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등급의 상향 혹은 유지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겠다는 뜻이다.

S&P는 “한국 은행들이 외화자금 조달 압력에 시달리고 있고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부정적 관찰대상으로 지정된 금융회사는 우리금융지주 신한카드 국민 우리 신한 하나 외환은행 등이다.

이에 앞서 무디스도 지난 1일 국민 우리 신한 하나은행 등 국내 4개 은행의 재무건전성(BFSR)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너무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고 국내 경기가 안 좋으니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은행 수익성이 떨어져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은 있다”고 말

했다.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부정적인 평가가 이어지면서 해외 조달금리 상승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은행들은 “등급을 낮춘 게 아니라 등급 전망을 낮춘 것이기 때문에 큰 위기가 없다고 본다”며 의미를 축소하면서도 당혹해 하는 모습이다.

한 시중은행 자금부장은 “신용평가기관이 국내 은행의 외화유동성 부족을 근거로 등급 전망을 낮췄다는 점을 볼 때 정부의 달러 직접 공급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현·박유연 기자

글로벌 자금경색 숨통 텃지만...

리보금리 하락 불구 아직도 높은 수준
실물경제 불안이 조기정상화 절림들
부시-사르코지 18일 추가 대책 협의

미국 재무부의 금융회사 자본 투입 결정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혼란이 일단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다. 전 세계적으로 막혔던 은행 간 거래가 초단기물을 중심으로 풀리기 시작해 신용경색 완화 조짐이 포착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직접 개입으로 시중은행 파산 위험도가 사실상 제거됨으로써 금융권의 신용디폴트스왑(CDS)은 미국에서 사상 최대폭으로 폭락한 지난 2월 수준의 절반으로 떨어졌다.

◆선진국 공조로 불안감 일부 해소

지난 10일 선진7개국(G7) 재무장관 회담 후 각국의 공조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헨리 폴슨 미국 재무장관은 14일 1250억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9개 은행 우선주를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7000억달러 구제금융책의 일환이다. 당초 금융회사 부실자산을 매입하려 했지만 지분 매입으로 방향을 틀었다. 저축은행과 지역 금융회사의 지분도 1250억달러 상당 매입한다.

달러 공급은 계속 확대된다. 일본

중앙은행(BOJ)은 15일 일본 내 자금시장 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달러를 무제한 공급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 뉴스가 보도했다. 달러가 필요한 금융사에 원하는 만큼 담보제한 없이도 정금리로 달러를 풀겠다는 방침이다. BOJ는 전날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달러 통화스와프 상한을 일시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15일 금융위기 추가대책으로 은행 예금지급 보장도를 1년 이내에 10만유로(1억7000만원)로 확대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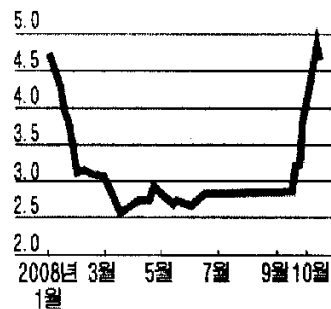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15~16일(현지시간) 이틀간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 모여 경제 협안을 논의한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오는 18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을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 초청해 글로벌 금융위기 추가 대응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은행 간 조달 비용 여전히 높아

각국의 유동성 공급으로 달러 가뭄이 해소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여

3개월 달러 리보 추이 (단위=%)



전히 자금시장은 기대만큼 빠른 회복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 "미국과 유럽의 잇단 구제금융 발표에도 불구하고 은행 간 대출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의 지불 보증과 직접 자금 투입이 예정돼 있긴 하지만 시장의 긴장감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실제 하루짜리 리보는 2%대로 크게 낮아졌지만 더욱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3개월 달러 리보는 14일 4.2%를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금융불안이 극에 달했던 지난 10일 4.4%대에서 0.2%포인트 하락했을 뿐이다.

통상 하루짜리 리보는 기준금리와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이지만 미국 기준금리인 1.5%보다 높은 수준이다.

3개월 파운드화 리보와 유로화 리보 역시 지난 14일 각각 6.24%와 5.

美정부 은행 부분 국유화 규모
(단위=억달러)

금융사	정부투자액	총자산
씨티그룹	250	21,000
JP모건	250	17,760
웰스파고	250	6,090
BOA	200	18,310
골드만삭스	100	10,820
모건스탠리	100	9,870
메릴린치	50	9,660
뱅크오브뉴욕	30	2,010
스테이트스트리트	20	1,480

* 자료=파이낸셜타임스(FT)·블룸버그

22%를 기록했다. 영국의 파운드화 리보는 영국 기준금리를 2%포인트 웃돌고 있다.

이처럼 은행 간 자금시장이 조기 정상화되지 못하는 것은 각국의 금리인하와 유동성 공조로 금융시장의 파국은 막았지만 실물경제 악화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상대 금융회사의 몰락으로 발생되는 리스크는 축소됐지만 각 금융회사가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대출을 꺼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엔화가 달러에 비해 강세를 보인 것은 투자자의 위험 회피 성향이 여전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FT는 "헤지펀드 유동성 위기와 중소기업의 취약한 자금조달, 신용시장의 통화 가치 급락과 외채 상환 부담 리스크가 여전히 금융시장의 악재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형취 기자

우크라이나, IMF 구제금융 요청

헝가리 지원조건 놓고 협상중...아이슬란드 금리 3.5%P 인하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금융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에 지원을 요청했다고 IMF가 15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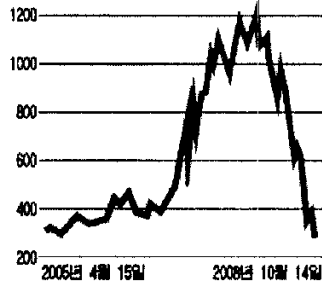
IMF는 이날 IMF 대표단이 우크라이나 관리들과 만나 경제정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선진국 경제가 정부의 구제금융과 막대한 자금 수혈로 수습 국면에 접어든 것과 대조적으로 소국들의 위기 국면은 더욱 증폭되는 모습이다.

우크라이나 금융시장은 최근 예금 이탈 규모가 이달에만 10억달러에 달하는 등 극심한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통화 가치와 주식시장이 곤두박질치고 은행 유동성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앞서 올렉산드르 투르치노브 우크라이나 제1부총리는 키예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IMF 대표단과 수일 내 만나 자금 지원과 관련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올리아 티모셴코 총리는 14일 기자회견에서 IMF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 급박한 상황인지를 묻는 질문에 애써 답변을 피했다. IMF 지원 요청 소식이 상황을 악화

급락하는 우크라이나 PFTS지수



시킬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우크라이나 경제가 갑자기 악화일로에 놓인 것은 서방과 친러시아파 간 정권 갈등에 은행 파산, 삼인적인 인플레이션이 맞물리면서 자금 이탈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번 주 잇따라 비상 경제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 불안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종합주가지수는 올해 들어 70% 가까이 폭락했다.

지난 2004년 친서방 정권이 들어선 이후 러시아와 긴장감이 고조돼 자금 지원을 요청할 수도 없다.

우크라이나의 인플레이션 상승률은 지난 5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1%를 기록했다. 초인플레이션

을 겪는 짐바브웨와 베네수엘라를 제외하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정부가 나서 물가 상승률을 지난 9월 16%대로 끌어내렸지만 금융위기를 진정시키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동유럽 신흥 강국인 헝가리 경제 역시 IMF와 비공개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MF는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며칠간 헝가리 정부와 현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협의했다"며 "필요할 경우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헝가리 통화인 포린트 가치는 올해 들어 20%나 하락해 최근 2년여 사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헝가리 투자자들이 금융위기가 확산되자 서둘러 달러와 유로 스위스 프랑으로 자산을 갈아타고 있기 때문이다. 헝가리 정부 역시 최후의 수단으로 IMF 구제금융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가 부도위기에 몰린 아이슬란드는 인근 국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에 55억달러의 긴급 자금을 요청해 협상 중이며 노르웨이와 덴마크로부터 지원을 받기로 했다.

아이슬란드의 중앙은행은 15일 정책금리를 15.5%에서 3.5%포인트 낮춘 12%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경기 부양에 대한 상징적인 조치였을 뿐이라는 혹평이다.

앞서 아이슬란드는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최근 관데스방키 등 3대 은행을 국유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럽 국가가 IMF 구제금융을 받는다면 이는 1976년 영국 사례 후 처음이다.

앞서 IMF는 발틱 3국으로 불리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와 카자흐스탄, 터키,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등도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고 경고했다.

동유럽 폴란드 역시 주식시장의 폭락으로 고민하고 있으며, 에스토니아는 부동산 가격이 고점 대비 40%나 빠졌다.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IMF 총재는 "신용시장 경색과 경기 침체가 겹치며 불안정한 신흥시장 국가들이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A25면
이형휘 기자

朝鮮日報

2008년 10월 16일 a23면

"IMF, 아시아 무시... 西方엔 꼼짝 못해"

IHT 칼럼니스트, 금융위기 '이중 잣대' 비판 "亞洲 위기때 모욕 주더니 최근 美·英엔 침묵"

인터내셔널 허럴드트리뷴(IHT)의 칼럼니스트인 필립 바우링(Phillip Bowring)은 14일자 IHT에 실린 칼럼을 통해 IMF(국제통화기금)가 동양과 서양에 대해 이중 잣대를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우링은 '아시아의 되살아나는 분노'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아시아 국가들은 최근 미국발(發) 금융위기를 바라보면서 10년 전 자신들이 IMF에 당했던 수모를 떠올리며, 이번에 미국·영국 등에 아무 말도 못하는 IMF의 조직적 편향성에 분노하고 있다"고 썼다.

중국 인민은행의 이강(易綱) 부행장이 최근 "IMF는 미국·영국·스위스·일본 등 특정 국가들을 감시하는데 거의 완전히 실패했다"고 혹평했듯이 IMF의 나약한 금융 정책이 세계적인 자금 경색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바우링은 "1998년 당시 미셸 캉드쉬 IMF 총재가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대통령에게 안긴 모욕을 아시아인들은 잊지 못한다"면서 "지금의 IMF가 형평성(equilibrium)을 회복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 내부의 편견(bias)을 종식시켜야 하는 문제도 제기된다"고 꼬집었다. 199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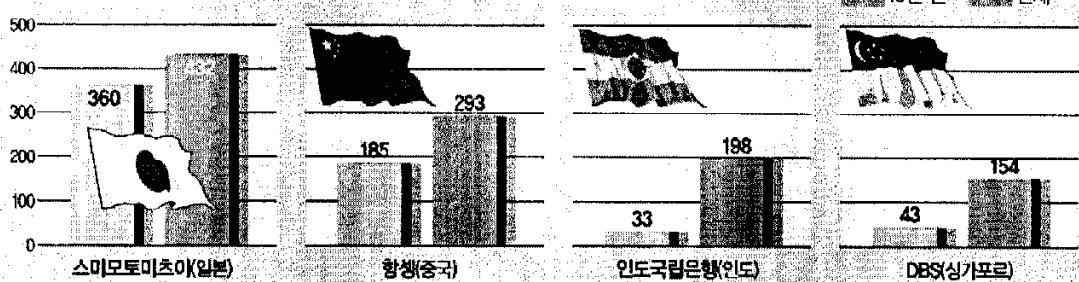
당시 수하르토 대통령이 IMF의 구제금융안에 서명하는 동안 캉드쉬 총재가 뒤에서 팔짱을 끼고 내려다보는 모습은 인도네시아인들에게 깊은 모멸감을 안겨주었다.

바우링은 IMF가 지난달 호주에 대해서는 '건전한 거시경제 정책'이라고 칭찬하는 보고서를 내고, 일부 서방 언론이 한국에 대해서는 경고를 남발하는 것은 매우 대비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바우링은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호주의 6배, 경상수지 적자는 호주의 3분의 1, 가계 부채는 호주의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호주의 상황은 한국 상황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분석했다.

홍콩=이항수 특파원
hangsu@chosun.com

아시아 대형은행 시가총액 비교 (단위: 억달러)



자료: FT

“표은행 10년전 외환위기때 닮아”

FT, 외형 성장·통화가치 붕괴등 유사
“재무건전성 개선 위기 가능성은 작아”

최근 인도와 홍콩 일부 은행의 예금인출 사태는 10여년 전 아시아 외환위기를 연상시킨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지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동안 내실을 다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 위기 상황이 아시아 은행들을 다시 비취와야 할 정도까지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단 현 상황은 외환위기 당시와 닮아있다는 게 FT의 설명이다. 비록 위기 원인이 당시에는 아시아 내부에 있었다는 점이 지금과 다르지만 수년간의 고도성장에 따른 은행의 외형 성장은 닮아 있다. 또 세계시장의 투자자들의 시각이 비관적으로 바뀌고 현금 부족에 직면하면서 아시아 경제와 아시아 통화가치에 의문을 품기 시작해 위기가

촉발됐다는 점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당시에도 외국인들의 매도는 시장에 투매를 불러왔고 결국 통화가치 붕괴와 경기후퇴를 불러 왔으며 아시아 지역 은행도 심각한 상황에 몰렸다는 게 FT의 분석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아시아 은행들이 체질을 강화해 당시와 같은 외환위기, 금융위기로 치달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FT는 전했다. 아시아 은행들의 경기둔화 대처 능력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에 뿌리를 둔 이번 금융위기에서 유럽 은행들과 달리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노출된 아시아 은행들은 거의 없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지난 8월까지 전세계 은행들

이 떨어진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부실자산 5000억달러 가운데 아시아 금융기관들이 상각한 규모는 일본을 포함해 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재무건전성이 크게 좋아진 점 역시 고무적이다. 지난 97년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은행들의 평균 자기자본비율은 5%에도 못 미쳤지만 지금은 10%를 넘었다.

그렇지만 직접 노출이 작다고 하더라도 세계적인 흐름에 대해 아시아 은행들이 면역력을 갖췄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게 FT의 분석이다.

자금조달 비용 상승, 자산가치 붕괴, 세계경기 둔화 전망은 물론이고 이에 따른 아시아 지역 수출업체와 내수 둔화를 피해가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FT는 특히 해외 단기차입 비중이 높은 한국과 호주 은행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dymnapepe@fnnews.com | 송경재기자

“조국과 경제를 위해 사인하시오”

폴슨, CEO들에 '으름장' ... 3시간반만에 항복 문서 받아내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해야만 하는 일이다.”

14일 오전 8시40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재무부 건물 안 기자회견장. 총 2500억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씨티그룹 JP모건체이스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웰스파코 등 9개 주요 금융사를 부분 국유화키로 했다는 발표문을 읽는 헨리 폴슨 재무장관의 목소리는 비장했다. 몇 주 전까지 은행권에 대한 공적자금 직접 투입은 '파산의 시그널(신호)'로 비쳐질 수 있다며 반대했던 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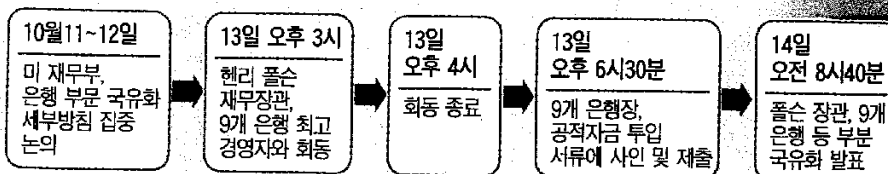
운명의 13일 오후 3시

시계바늘을 뒤로 돌린 13일 오후 3시 재무부 회의실. 제이미 다이몬 JP모건체이스 회장을 비롯 미국 9개 선두은행의 최고경영자(CEO)들이 긴급 소집돼 회사 이름 앞과 뒷 순서대로 자리를 잡았다. 그들 앞에 한 장의 문서가 놓여있었다. 정부가 은행의 우선주를 매입하며, 임원 보수와 배당 정책을 제한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계약서였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과 나란히 앉은 폴슨 장관은 미 경제의 암울한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묘사했다. 뉴욕FRB 총재인 티모시 가이스너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그는 씨티그룹 250억달러, 골드만삭스 100억달러 등 우선주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9개 은행에 1250억달러를 투입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했다. 회의장은 곧바로 소란스러워지며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하지만 월가 최고의 협상가들을 위한 협상 절차는 없었다. 폴슨과 버냉키는 “조국을 위해, 경제를 위해(for the country

미국 9개 은행의 부분 국유화 막전막후



*미국 현지시간 기준

and the economy)”라는 말과 함께 서명을 하지 않으면 회의실을 나갈 수 없다는 폭탄선언을 하고 오후 4시에 자리를 뒀다. CEO들은 2시간30분가량을 고민하다가 오후 6시30분께 서류를 제출했다. 가장 나중에 서명한 이는 리처드 코바체비치 웰스파코 회장이었다.

재무부회의에서 3시간30분 동안 일어난 일은 한 편의 드라마였다. 한때 월가 동료였던 폴슨 장관과 암갈색 테이브를 마주하고 앉은 9명의 CEO 중 일부는 정부의 조건이 워런 버핏이 골드만삭스에 50억달러를 투자할 때 받아낸 조건보다 유리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부실했는데 지분 왜 넘기냐”

하지만 코바체비치 회장은 “도끼지(주택담보대출) 부문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아 구제금융을 받을 만큼 어렵지도 않은데 정부에 왜 우리 은행 지분을 넘겨야 하나”고 불만을 터트렸다. “정부 투자가 오히려 주주들에게 손해만 끼칠 것”이라는 점도 역설했다. 그는 거액의 퇴직보수(황금낙하산)를 포기해야 하는 데에도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코바체비치 회장은 와코비아 인수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

퇴직할 경우 보너스 4300만달러와 1억 4000만달러어치의 주식과 스톡옵션을 받도록 돼 있다고 컨설팅회사인 제임스리다 & 어소시에이츠가 전했다.

케네스 루이스뱅크오브아메리카(BOA) 회장도 “얼마 전 100억달러를 자체 조달했다”며 거부감을 보였다. 하지만 “임원보수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정신없는 일”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골드만삭스의 로이드 블랭크페인 회장, 씨티그룹의 비크람 판디트 회장, 메릴린치의 존 태인 회장, 다이몬 JP모건 회장 등은 “정부 보유 지분이 다른 우선주 주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재무부는 자본투입 대가로 일정 부분의 경영권을 요구할 것인가” 등의 질문을 쏟아냈다.

논의가 격렬해지자 폴슨 장관 옆자리에 있던 버냉키 FRB의장이 끼어 들었다. “분위기가 합착해질 필요는 없다”고 말을 꺼낸 그는 “이번 구제금융안은 은행이나 경제 전체에 모두 득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심지어 건전한 은행도 악화될 수 있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맥 모건스탠리 회장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하기 전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미쓰비시UFJFG(파이낸셜그룹)로부터 90억달러를 유치했기 때문에 정부 자금이 필요없다고 했던 그였지만 9명의 CEO 중 제일 먼저 사인을 했다.

맥 모건스탠리 회장 첫 사인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는 폴슨 장관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판디트 씨티그룹 CEO가 공적자금을 받으면 더 유익한 자금 운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루이스 회장도 BOA의 영업 전망이 미국 경제와 직결돼 있음을 알게 됐다고 말하면서 은행을 위해서도 공정한 거래라는 다이몬 JP모건 회장의 발언에 수긍하는 분위기가 됐다. 회의 막바지에 은행 대표들은 자사 이사진들과의 통화를 위해 재무부 건물 밖으로 나서거나 자신의 리무진 승용차를 찾아가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15일 “2500억달러 거래 뒤에 있는 드라마”라는 기사를 통해 회동을 전후한 뒷얘기를 이렇게 생생하게 전했다.

워싱턴=김종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

‘구제’ 다음은 ‘규제’

경영진 교체·자산매각 등

美재무부, 부실사 경영 참여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구제금융을 통해 금융사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한편, 본격적인 규제·감독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채찍’도 들겠다는 것이다.

미 재무부는 2500억 달러를 은행에 투입하는 댓가로 부실 책임을 물어 경영진 교체를 이사회에 요구할 수 있다. 재무부는 또 인수합병(M&A), 자산매각 등과 같은 주요 경영 결정 과정에도 관여하게 된다. 미 정부는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반적인 감독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다. 현재 투자은행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는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권을 FRB로 넘기겠다는 것이다.

FRB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함께 감독하게 되면 금융사들은 회계장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영업과 관련한 정보도 보다 많이 공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완충자본을 더 많이 확보하고 투자할 때 차입 의존도를 낮추는 쪽으로 제도 개편이 논의되고 있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권한도 강화된다. 부실 징후가 감지되면 자본을 확충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3자 매각이나 퇴출을 명령하게 된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헤지펀드에 대한 감독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도 금융사 자기자본 규제 강화, 신용평가사 개편, 범유럽 차원의 새로운 금융감독체계 도입 등의 방안도 논의 중이다.

부실 금융사 임원 보수와 거액 퇴직금(황금낙하산)도 제한된다. 영국 금융감독청(FSA)은 14일 금융회사 보수체계 기준안을 발표했다. 리스크 고려없이 단기수익에 기초한 성과측정 방식 대신 이익, 사업목표,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인 성과 평균치를 따지는 새 보수체계의 핵심이다.

뉴욕=이익원 특파원

iklee@hankook.com

펀드 시장에도 印, 유동성공급

펀드런 대비 5兆2,00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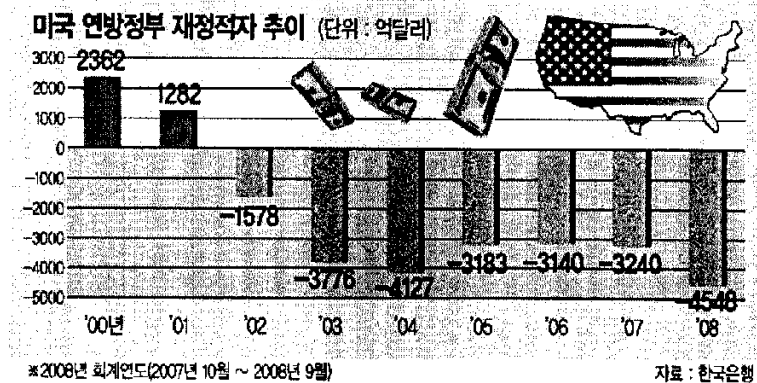
은행 자금준비율을 인하여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했던 인도 중앙은행(RBI)이 이번에는 펀드런(대량 환매사태)에 대비해 펀드 시장에도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15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RBI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은행들이 뮤추얼펀드에 대출해줄 수 있도록 은행 소유의 정부채권을 담보로 최대 2,000억루피(약 5조2,000억원)를 대출해줄 방침이다. 정부가 은행에 지급하는 대출 이율은 9%, 은행이 펀드에 대출하는 자금의 이율은 10~11%다. 이는 증시나 채권 시장의 급격한 하락으로 펀드의 대량 환매사태가 발생할 경우 펀드 운용사가 유동성 위기에 빠지는 것을 막는 것은 물론, 뮤추얼펀드의 급격한 자산 매각에 따른 시장 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RBI는 전날 시중은행들이 뮤추얼펀드에 예금증서를 담보로 대출해줄도록 요청했다.

일간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업계 소식통을 인용, 이미 상당수 펀드들이 은행에 대출 신청한 상태이며 이는 많은 운용사들이 대규모 환매 압박에 시달리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현지 경제일간 비즈니스 스탠더드는 이런 대규모 환매로 인해 인도 뮤추얼펀드산업 역사상 처음으로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MMF의 일종인 리퀴드 플러스 펀드의 순자산(NAV)이 액면가를 밑도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특히 한국계 운용사인 미래에셋의 6개 리퀴드플러스 펀드의 경우 액면가에 비해 순자산이 7.80~6.43% 낮게 나타났다고 신문은 전했다.

/강동호기자

eastern@sed.co.kr



美 재정적자 4548억弗 또 다른 위기 '도화선'

내년도에도 구제금융으로 7천억弗 '출쩍'

【뉴욕=정지원특파원】 미국의 2008 회계연도(2007년 10월 ~ 2008년 9월) 재정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유럽 역시 잇따른 대규모 구제금융에 나서면서 재정악화가 가시화되고 있어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2008년도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4548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의 3.2%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백악관이 지난 7월 예상한 재정적자 규모는 3890억달러였다.

미국의 재정적자가 이같이 급증한 것은 주택시장 침체와 경제 하강, 군비 증가, 실업 증가 등으로 인한 재정 수입 악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가 내년에 다시 대폭 늘어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700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안 '긴급경제안정화법안(ESSA)'의 집행에 따른 대규모 공적 자금 투입이 예정된 사항이어서 내년도 미

국의 재정적자는 7000억달러를 가볍게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CNN머니는 "당장 다음달에 금융기관의 자본매입에 2500억달러를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미국 정부의 재정 압박이 더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이 부시 행정부가 2002년 출범한 이래 미국이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려온 사실을 지적하며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 운용은 차기 정권을 시작부터 수렁에 빠트리게 될 것"이라고 꼬집는 동시에 "재정적자의 악화가 또다른 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한편 파이낸셜타임스(FT)지는 15일 보도를 통해 유럽 각국 정부의 대규모 구제금융 계획들이 정부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올해 65.3%에 육박하고 내년도에는 66%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jung72@fnnews.com

아이슬란드보다 위험 더 높아 파키스탄·아르헨 등 투자 조심

삼성증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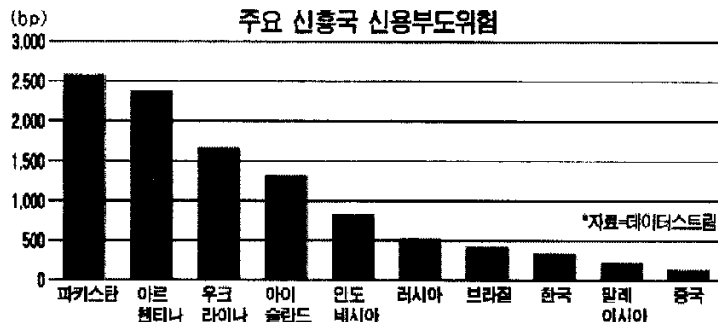
남미와 아시아 등 이머징시장 국가에 본격적인 유동성 위기 조짐이 포착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이 강력한 공조체제 아래 금융회사에 달러를 무제한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등 '바닥을 틀어막아' 놓은 반면, 이머징국가들은 달러가 급속히 유출되면서 부채를 갚지 못하는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이머징시장은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에도 '풍부한 자원'과 '성장성'을 이유로 서방 시장을 대신할 투자처로 언급돼 왔다.

그러나 실상은 이후 이머징국가의 크레딧디폴트스왑(CDS) 수준이 급증했고 이에 따라 투자를 자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CDS는 해당 국가가 발행한 채권의 부도 위험을 막기 위해 드는 보험요율을 가리키는데 높을수록 국가 부도위험이 높다고 풀이한다.

15일 정명지 삼성증권 연구원은 "파키스탄(2572bp), 아르헨티나(2384bp), 우크라이나(1658bp) 등은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 아이슬란드(1304bp)보다 CDS 수준이 높다"며 "글로벌

주요 신흥국 신용부도위험



자본의 신흥시장 이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카자흐스탄은 최근 일주일 동안 카자흐스탄 상장 기업 자본의 11%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자본이 이탈하면서 주가지수가 30% 이상 하락했다. 리서치사인 'Unicorn IFC'는 2008년 7월부터 지속된 외국인 자본 유출로 올 하반기 카자흐스탄 평가치가 계속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헝가리 통화인 포린트는 외자가 대규모 이탈하는 가운데 지난 주 유로 대비 가치가 2년여 사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 연구원은 "신흥국가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많은데 경기 침체로 미국, 유럽 소비시장이 무너지면 유동성 위기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즉 수출

이 급격히 줄면서 경상수지 적자에 시달리게 되고 달러가 부족해져 통화 가치가 크게 떨어지면 달러 수요 초과로 자본이 계속 빠져나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얘기다.

이경수 신행증권 연구원도 "이머징시장은 자본시장 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정치적으로 불안한 곳도 많아 자금이 유출되기 시작하면 은행을 선두로 국가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호바트 엠스타인 KTB투자증권 대표는 "그동안 이머징국가의 경제 자체는 독립성이 높아졌지만 무역 등이 활발해지면서 금융 시스템과 자금은 더욱 더 선진 시장과 연동돼 온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소아기자

亞 13개국 공동기금 설립

세계은행 100억弗 지원

한국·중국·일본 등 3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10개국 등 13개 국가가 글로벌 금융 위기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의 기금 설립에 합의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필리핀 대통령은 이날 마닐라 대통령궁에서 연설을 통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13개국이 유동성 위기에 빠진 국가들을 돕기 위해 긴급 자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세계은행(WB)이 우선 100억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로요 대통령은 “한·중·일 3국,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기금(IMF)도 협조할 것”이라면서 “이 기금은 은행권에서 ‘독소 자산’

을 매입하고 금융기관과 민간기업의 자본을 늘리는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기금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지난 주말 워싱턴에서 열린 세계은행 IMF 연차총회에서 제안됐으며 현재 세부사항을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아로요 대통령은 “아세안과 한·중·일 3국은 다음주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 정상회담에서 별도의 긴급회의를 가지고 글로벌 금융 위기가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세안 회원국은 필리핀·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태국·브루나이·베트남·라오스·미얀마·캄보디아 등 10개국이며 한국·중국·일본이 대화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hanverni@hnews.com | 오미영기자

한국경제

2008년 10월 16일 a10면

아시아서도 ‘예금 100% 보장’ 확산

“뱅크런 막자”-대만 이어 홍콩·마카오도 가세

아시아에서도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을 막기 위해 은행 예금을 전액 보장하는 정부가 늘고 있다. 거액 예금자들이 예금 전액 보장 국가의 은행으로 예금을 옮길 것으로 우려되면서 이 같은 조치가 도미노처럼 확산되는 양상이다.

홍콩 금융관리국은 현재 10만 홍콩달러(약 1543만원)로 돼있는 예금 보호 한도를 풀어 현지에서 영업하는 국내외 은행의 예금을 100% 보장한다고 14일 발표했다. 홍콩에 예치된 예금은 6조 홍콩달러(925조원)에 이른다. 예금 보장제도가 없었던 마

카오도 같은 날 28개 현지 은행들의 모든 예금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아시아에선 지난 8월 태국에 이어 대만이 이달 7일 이 같은 조치를 취했고, 호주와 뉴질랜드도 12일 모든 예금을 보호키로 결정했다.

예금 전액보장 조치는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독일 그리스 포르투갈 등 유럽 주요 국가와 미국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을 거쳐 아시아로 번지는 양상이다. 싱가포르도 홍콩의 예금 전액 보장조치로 예금이 홍콩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비슷한 조치를 취할 가능

성이 높다고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트타임스가 15일 보도했다. 싱가포르가 예금 보장 조치를 취할 경우 말레이시아도 이를 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레이시아의 인터넷 신문 인스타온라인이 이날 전했다. 인도네시아는 이날 정부가 보장하는 예금 이자율 상한선을 연 9.25%에서 10.0%로 조정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15일 현재 2만유로로 돼 있는 은행 예금 보장한도를 최소 5만유로로 즉각 상향 조정하되 1년 이내에 이를 10만유로(1억7000만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

中증시 나홀로 행보

글로벌증시 반등불구
이들째 하락 2000 붕괴

중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와는 동떨어진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해 관심을 끌고 있다. 다른 증시에 비해 등락폭이 작고 정반대로 등락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금융위기 불안감이 정점에 달하면서 전 세계 증시가 동일한 움직임을 보인 것과는 사뭇 다르다.

전문가들은 이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완전히 개방되지 않은 중국 증시의 특성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외국인 비중이 작은 만큼 해외 변수보다는 국내 변수에 의해 좌우된다는 뜻이다.

15일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전날보다 1.12%(22.65포인트) 하락한 1994.67로 마감했다.

개장 전까지만 해도 전날 글로벌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홀로 하락했던 만큼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 하지만 원자재 관련주와 증권주의 실적이 악화될 것이라는 염려가 커지면서 상하이종합지수는 장 초반부터 하락했다.

'중국 철도부'가 국영 철도회사들의 신주 발행을 추진하겠다는 소식도 투자심리에 부담을 줬다.

무엇보다 중국 투자자의 기운을 댄 것은 지난주 말 막을 내린 '중국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중국 상하이종합지수 추이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주까지 중국 투자자들은 3중전회를 통해 중국 정부가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등 경기 부양책을 공식 발표함으로써 상하이종합지수가 반등할 만한 초석을 다져주길 기대했다. 지난주부터 지난 13일까지 전 세계 증시가 많게는 20% 이상 급락하는 가운데서도 상하이종합지수의 하락폭이 9.69%에 그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고, 이는 곧 중국 증시 악세로 이어졌다. 전 세계 증시가 폭등한 지난 14일 상하이종합지수는 거꾸로 2.71% 하락했고, 15일에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허재환 대우증권 연구원은 "중국 A주 시장의 시기총액에서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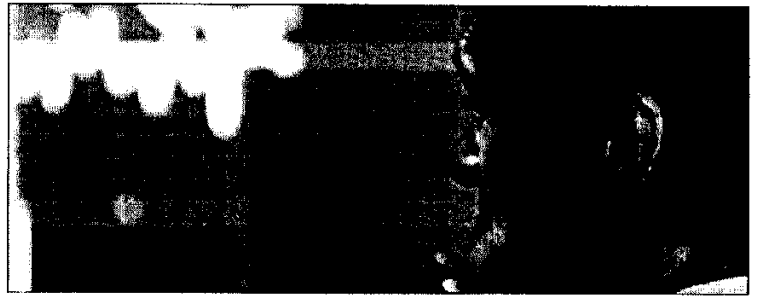
지하는 외국인 자금 비중은 2% 미만"이라며 "외국인 비중이 큰 증시가 미국 등 해외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중국 증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여기에 중국 증시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지난해 증시 호황기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전반적인 증시의 탄력이 약해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중국 증시가 국내 변수의 흐름에 따라 2000선 언저리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3분기 기업 실적과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이 주가 흐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승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은행주 실적은 예상보다 양호한 반면 다른 기업들은 예전과 달리 어닝 서프라이즈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며 "9%대 성장률을 기록 중이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은 중국 증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허재환 연구원은 "상하이 지방 정부가 침체에 빠진 주택 매매 활성화를 위해 모기지 가계대출 한도 상한선을 늘리는 등 지방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며 "이 같은 움직임이 중국 증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지수 6000… 꿈같던 그 날 다시 올까요”



한 중국인 투자자가 14일 상하이(上海) 증권회사 객장에서 추가정보 화면을 바라보고 있다. 이날 상하이종합지수는 전 세계 주요 증시의 폭등세와는 달리 2.71% 하락했다.

중증시 최고점 찍은지 1년… 상하이 증권사 객장의 ‘한숨’

“계속 들여다보면 뭘 해, 속만 터지지…”

15일 오전 중국 상하이(上海) 수이청난루(水城南路)에 있는 동하이(東海) 증권 객장 3층. 10만 위안(약 1800만원) 이상 투자한 VIP 고객들에게 증권사가 내준 20여 개 트레이딩 뚝은 텅 비어 있었다.

18번 뚝에선 증시 개장 30분 만에 카드놀이 판이 벌어졌다. 방 주인인 장(張·61)모씨는 “4명이 함께 쓰는 방인데 한 달째 나 혼자 나온다”면서 “요즘 옆방 사람들 불러서 카드놀이 하는 게 유일한 낙”이라고 했다.

스님까지 주식투자에 뛰어들며 ‘주식 광풍(狂風)’으로 뜨거웠던 작

년 5월 초, 24만 위안을 주식에 투자한 장씨의 주식 평가액은 1년 전인 작년 10월 16일 주가가 사상 최고점인 6092(상하이 종합지수)를 찍을 때 40만 위안이 넘기도 했다. 하지만 꼭 1년이 지난 15일 현재 약 4분의 1인 11만 위안으로 줄었다. 장씨는 “20년 저축한 돈의 3분의 2를 주식에 넣었는데, 이제 세계 금융위기가 터졌으니 본전 찾기는 더 힘들어진 것 아니냐”고 한숨지었다.

信)증권은 올 여름 상하이 구베이루(古北路)에 ‘VIP고객 전용’ 영업점을 내고 부유층을 끌어들이려 애쓰지만, 15일 이 영업점의 10여 개 트레이딩 뚝은 모두 불이 꺼져 있었다.

각종 수치도 이를 증명한다. 작년 10월 16일 하루 2300억 위안이 넘는 중국 증시의 거래액은 1년 만에 763억 위안(14일)이 됐고, 하루에 최고 43만개(작년 10월 19일)를 넘었던 신규개설 계좌는 일주일(10~14일)

아줌마·퇴직자 부대 넘치던 객장엔 3~4명 뿐 투자자 “1만위안이 1500위안 돼… 정부 뭐하나”

같은 시각 한 층 아래에 있는 일반 고객 객장에선 40대 주부 천린(陳林)씨가 낫 나간 듯 단말기를 웅시하고 있었다. 올 초까지 도시락을 싸 들고 나온 ‘아줌마 부대’ ‘퇴직자 부대’로 터져나갈 듯 했던 약 100㎡ 넓이의 객장에는 불과 4명만 지키고 있었다. 증권사 영업직원은 “전에는 신규 계좌를 트러 온 사람들이 건물 밖까지 늘어섰는데, 오늘은 한 사람도 없다”고 했다. 천씨는 “1만 위안 원금이 1500위안이 됐다”며 “정부가 나서서 증시를 살려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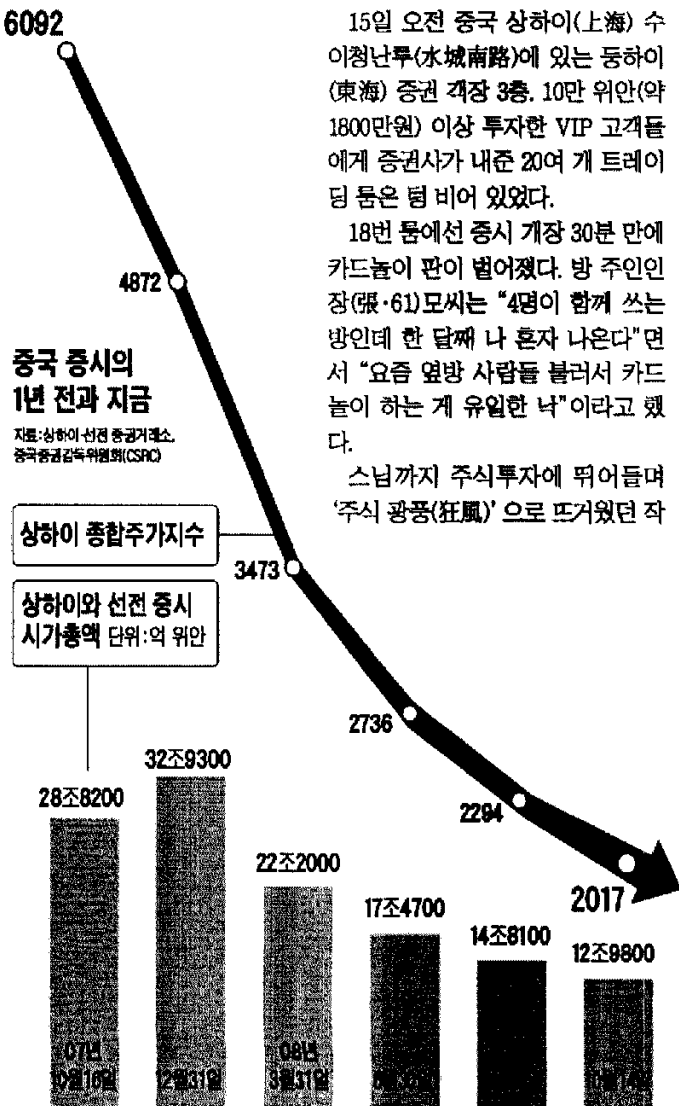
집을 팔아서라도 주식투자를 하지 않으면 ‘팔폰이’ 소리를 들었던 1년 전과 달리 중국인들의 투자심리는 꽁꽁 얼어붙어 있다. 중국 중신(中

에 17만개 수준으로 떨어졌다. 중국 증권망은 증권사들의 올해 수익이 작년 대비 65~70% 가량 줄면서, 감원과 감봉 한파(寒波)가 몰아치고 있다고 15일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수급(需給) 문제가 심각한데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경기침체 가능성까지 고조되면서 올 연말까지 증시 회복은 쉽지 않다고 분석한다. 송해성(宋海成) 상하이 삼성증권 대표는 “정부의 급리인하 조치로 9월 18일 상하이 지수가 1800선에서 일단 반등했지만, 매매제한이 풀리면서 계속 쏟아지고 있는 비(非)유통주 물량이 해결되지 않는 한 1800선도 불안하다”고 내다봤다.

상하이=이명진 특파원

milee@chosun.com



“日 경제 회복세 G7중 가장 빠를 것”

캐피탈 이코노믹스 보고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일본 경제가 예상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 경제의 회복세는 선진7개국(G7) 국가 중에 가장 빠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수석 연구원인 줄리언 제숍은 13일(현지시간) 보고서 통해 “일본은 다른 주요국을 침체로 빠뜨린 경제 및 재정 불균형의 문제가 크지 않은 편”이라면서 “일본 경제의 최대 위협이었던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약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내년에 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여력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도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고 엔화의 가치가 하락해 당초 예상보다 성장이 위축될 것”이라면서도 “일본이 올해 주요 선진국 가운데 성장이 가장 저조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여건이 나아지면서 물가상승이 둔화되면 제일 먼저 회복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일본 경제가 앞서의 몇차례 침체 때에 비해 그다

지 나쁘지만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본 내각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14일 발표했다. 나카가와 쇼이치 일본 재무장관은 내각회의 후 주가 대책이나 지역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정책 등 정부의 금융 위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금융위기 대책에는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금융기관에의 공적자금 투입책 부활과 기능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l dymnapapa@nnews.com | 송경재기자

한국경제

2008년 10월 16일 a11면

경제학 두 거두, 경제위기로 잊갈린 조명



시장개입 주창
케인스
화려한 부활

신자유주의자
프리드먼
명성에 흠집



‘빛보는 케인스, 빛바랜 프리드먼.’

세계를 뒤흔든 금융위기로 경제학의 두 거두가 잊갈린 조명을 받고 있다. 정부의 역할 축소와 자유시장 확대를 주창하며 그동안 주류경제학으로 자리잡아온 통화주의의 대부 밀턴 프리드먼의 평가가 절하되고, 과감한 재정정책을 앞세운 존 메이nard 케인스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최근 미국 정부가 700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바탕으로 9개 주요 은행을 부분 국유화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 비판적이었던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선 후보까지 1700억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제시하면서 ‘케인시언(케인스의 이론을 믿고 따르는 사람)의 화려한 부활’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오바마 캠프의 경제 고문인 자

레드 번스타인은 “위기에 몰리면 무신론자가 없듯이 경제위기인 요즘 시장주의자들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수요를 창출해 공급을 살린다는 케인스 경제정책은 미국 경제를 1930년대 대공황에서 구하고 40년 가까이 세계경제의 호황을 이끌었다. 1970년대 리처드 닉슨 미 대통령이 “우리는 모두 케인시언”이라고 말할 정도로 당시 케인스 이론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하지만 1970년 두 차례에 걸친 오일쇼크 후 발생한 ‘스테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둔화)은 케인스 이론을 곤경에 빠뜨렸다. 이때 ‘반(反) 케인스의 선봉’에 나선 프리드먼은 케인스식 ‘정부 역할론’을 부정하고 ‘작은 정부론’을 내세워 자유시장에 대한 믿음을 되살려 놓았

다. 그의 이론은 자유시장 정책으로 상징되는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 등을 통해 주류 경제정책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최근의 금융위기는 2006년 11월 타계한 프리드먼의 명성에도 금이 가게 하고 있다. 그의 고향이나 다름없는 시카고대학 안에서도 평가가 예전같지 않다. 프리드먼은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1976년까지 30년 가까이 시카고대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시카고학파를 창시했다.

경제학자들은 불황에선 정부 개입을 늘려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케인스 이론이 위력을 발휘하지만, 위기가 지나면 재정적자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악순환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프리드먼식 통화정책이 힘을 얻는다고 말한다.

유병연 기자 yoo@hankyung.com

▶▶ 스티븐 로치 모건스탠리 아시아 회장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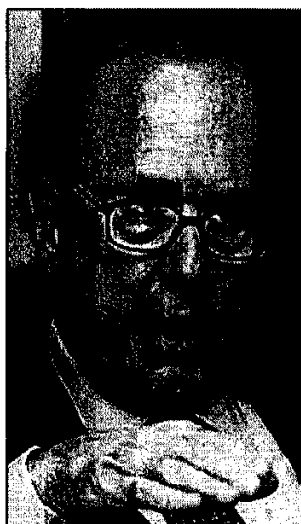
美 경기침체 3~5년 지속 깜짝 반등은 약세장 랠리

【뉴욕 워싱턴 특파원】 "미국 경기 침체가 3~5년 걸릴 것이다." "미국 주식시장은 약세장 랠리(반짝 상승) 시작에 불과하다."

스티븐 로치 모건스탠리 아시아 지역 회장은 1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매일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민간 은행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자본 투입에도 미국 경제는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로치 회장은 "세계 경제와 세계 금융시장에 대해 오랫동안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세계가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서도 "미국 경제는 신용경색 여파 등으로 소비가 더욱 위축돼 경기 하강 국면이 3~5년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경제는 실업률 상승과 주택가치 추가 하락이 소비 지출을 위축시킴에 따라 더욱 악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유럽과 아시아의 수출도 둔화돼 결국 세계 경제의 성장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 은행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자본 투입에 대해 "금융시장이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것을 중지시키고 신용경색을



일부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번 대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로치 회장은 이어 이번 위기는 너무나 심각하고 위협적 이어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모두 과소 대응하기보다는 과잉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로치 회장은 특히 현 상황은 시장과 금융회사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지도력의 위기라면서 세계 정책 당국의 적극적인 공조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로치 회장은 이와 함께 글로벌 시대에서는 이 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장은 없다며 아시아 지역 역시 예외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자본 흐름을 따라 유럽으로 퍼졌고 무역 거래를 통해 아시아로 건너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선진국이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의존도가 큰 지역은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면서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성장률이 전반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뉴욕 주식시장에 대해 그는 "지난 13일 큰 폭 반등은 단기간에 급격히 하락한 데다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대책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것이며 이는 베어마켓(약세장) 랠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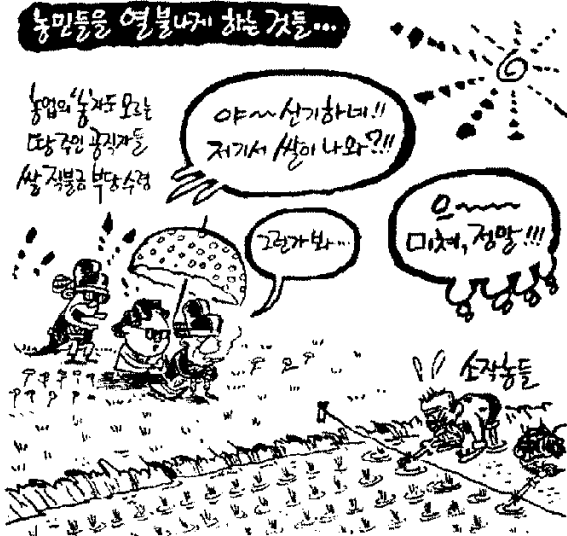
금융위기와 함께 전 세계 경제가 극심한 침체 국면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본격적인 상승세로 돌아서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로치 회장은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총회에 참석한 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면담했다. 미국의 부동산 거품 붕괴에 따른 신용경색을 예견한 바 있는 그는 월가의 최고 이코노미스트로 꼽힌다.

신경무

朝鮮漫評

kmshin@chosun.com



김용민의 그림마당
yongmin@kyunghyang.com



한겨레
그림판

교구마 줄기



장봉군
jang@
hani.co.kr

서울만평

백무현 bhm@seoul.co.kr



김성화-김학용-권선택 '직불금' 받아

〈한나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중앙부처 국장급 2명-DJ 비서관도 수령... 이봉화 차관 곧 사퇴할 듯

中, 현대·기아車 수입 중단시켜

‘독과점법 위반’ 이유
月 500억원 손해날 듯

“한국 길들이기인 듯”

이봉화 차관, 자진사퇴 형식으로 교체할 듯

李대통령 “새로운 국제금융기구 필요”

발전소 짓는데 7년반... 송전선로 건설엔 9년

규제에 ‘감전’된 전력 공급

11개부처 거치고 지자체와도 협의 ‘첩첩산중’

당진~온양 송전탑 사업 5년째 장소도 못정해

행정법원-서울고법 ‘뉴타운 재개발’ 관련 잇단 판결

“세입자 이주비는 시행인가고시일 기준 지급”

사업비용 크게 늘어날 듯

“이주대책기준일 입주자 선정 법적근거 없어”

월가서 터진 폭탄
내 지붕 날아간다

이자 부담 커지고
부동산 얼어붙어
2~3년은 추울 듯